

www.artin.or.kr

THE ART OF INCHEON

영혼을 맑게 하는 예술지

예술인천

2012년 제6호
봄호



FACO
대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THE FEDERATION OF ARTISTS & CULTURAL ORGANIZATIONS OF KOREA

한국예총
인천광역시연합회

경동근처(京洞近處)

어느 겨울의 오후라도 좋고
찾집 창변의 사보텐이라도 좋다

수다스런 백화점 쇼윈도에
떨어지는 성 베드로의 종.

여운이 남는 크낙한 여백에
얼굴들이 부고처럼 비애를 심어간다.

지붕 너머 회은색(灰銀色)바다가 점멸하는 동안
어찌라는 것인가 붉은 시그널!
네거리는 지금 마약 황혼을 헐어 벽을 쌓고



군중의 밀림 속 무성한 고독이
뚝 내린 범선처럼 집결한 기항지.

면지같이 자욱한 흰요(喧擾)가
삼엄한 적막을 합창하는 거리 거리
정결(淸結)한 공기는 지금 지층보다 무겁다.

이런 때 어찌 시계는 태연히 돌고 있는 것일까.
눈이라도 펴내야겠다.



최승렬(崔承烈)
(1921~2003작고)

전주출생. 호 원정(園丁).
1958년 인천 이주, 제물포고등학교 국어 교사.
1955년 동시집 『무지개』, 1959년 시집 『원정(園丁)』
1975년 동시집 『푸른 눈동자에 그린 그림』
1980년 시집 『산맥』
1990년 어학서 『한국어의 어원』, 『한국어의 어원과 한국인의 사상』
1992년 『한국어와 일본어의 비교』
1996년 시집 『순수시대』, 수필집 『술과 언어』
1997년 어학서 『백제와 4세기 일본/한국어와 일본어』 등 발간.
1997년 인천시 문화상 수상.





‘그리운 금강산’ 작곡가 최영섭

표지제호 · 글빛 박학남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 심사역임
 수원대학교미술대학원 서예전공 겸임교수
 한국미술협회 서예분과이사
 남동구문화예술회 회장
 한국신지식인
 빛갤러리 대표

발행/편집인 | 김재열

기획·주관 | 김학균

편집, 취재 | 이관형/고 춘/최종욱
 이현정/장서정/방은정

발행일 | 2012년 3월 30일

발행처 | (사)한국예총인천광역시연합회
 402-812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안길 78
 (인천문화회관 2층)

전화 | 032)873-5174, 872-7873

팩스 | 032)872-5551

홈페이지 | www.artin.or.kr

이메일 | artincheon@nate.com

퍼낸곳 | 진원디자인프린텍

정가 | 8,000원

영혼을 맑게하는 예술전문잡지 『예술인천』은
 한국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예술인천』에 실린 모든 자료의 저작권은
 (사)인천예총에 있습니다.
 사진 등의 없이 무단 사용 및 복제를 금합
 니다.

영혼을 맑게 하는 예술지

예술인천

2012년 제6호
 Contents

창을 여는 詩

경동근처(京洞近處) | 최승렬 4

커버스토리

작곡가 최영섭 8

지상갤러리, STORY

만선 | 김상순 10

상상공간 | 김혜선 11

자작나무 | 전운영 12

내안의 섬-바람Ⅳ | 오정숙 13

세상사는 법도 | 변호숙 14

추억 | 김봉섭 15

표정 | 김대성 16

나들이 | 오명철 17

바래봉의 여명 | 장영진 18

상해묘기 | 김기술 19

발간사

인천은 인천적이어야 한다 | 김재열 20

작품속의 인천

공단통신(工團通信) | 최무영 22

기획대담

‘그리운 금강산’ 작곡가 최영섭을 찾아서 | 김학균, 고 춘 25

논단

創造的인 寫眞家 2 | 임무택 33

개항과 인천의 국악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이순희 46

THE ART OF INCHEON



Today Click 탐방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 이현정 52
- 인천예술고등학교 | 김학균, 이창구 57

Issue & Issue

- 기획공모전 자연과의 교감 | 이경모 64
- 인천-터키 현대미술 국제교류전 단상 | 박인우 70

연재

- 인천의 지명 그리고 정체성 | 조우성 74

흘러간 예술 흘러온 예술

- 한국예총 인천광역시연합회 강화지부 | 전준희 83

문학

- 여자와 가방 | 이옥금 88
- 불 사냥 | 이혜숙 89
- 삼겹살이 먹고 싶은 날 | 전병호 90
- 진짜 밥 | 현금순 91
- 인터넷 | 류인복 92
- 깍두기 | 정영인 95
-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 | 노기태 98

흘러간 인천의 옛이야기

- 길에서 묻다. 흔적들 | 김학균 101

Review

106

편집후기

110

COVER-STORY

• 작곡가, 최영섭 •



최영섭

- 1929년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사거리 77번지에서 출생(본적 : 인천시 동구 화평동 20)
- 서울대 음대 작곡과에선 김성태 교수께 작곡이론 사사
- 비엔나 국립음대 지휘과 수석교수 칼, 웨스터라이히 교수께 지휘법 사사
- 교회기념 작곡전집 전5권 출판(총2,570페이지)
- 최영섭 가곡집상, 중, 하권 210곡 (출판 2010)
- 교향시곡 "고요한 아침의 나라 동해바다에 해가 쏜다"(스코아 출판 2010)
- 광곡50주년 기념 교향곡 "오 사랑하는 나의조국"(전24장) 위촉 받아 작곡, 발표 외 400여곡 작곡
- 삼성그룹의 노래, 신한은행가, 한국전력 사가, 천의대 고가, 한국 방송통신대 고가 등 100여곡 작곡
- 국내외 가곡 관현악 편곡(1,500여곡)
- 베를린 필 12인의 첼로주자를 위한 청탁곡으로 한국가곡 "그리운 금강산" 외 4곡을 편곡하여 연주됨
-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부이사장(역임)
- 사단법인 한국작곡가협회 부회장(역임)
- 한국작곡가회 회장(역임)
- 서울 내셔널 심포니오케스트라 명예단장
- "그리운 금강산" 노래비가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구내광장에 건립됨(2000년 8월 15일 완공)
- 출생지 인천시 강화군에 "그리운 금강산" 노래비 공원 건립(2010)
- 한국예술가곡 진흥위원회 공동대표(현)
- 한국예술가곡 연합회 명예회장(현)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현)
- 노래작곡 청탁사 '코리아슈벨트' 대표(현)
- 사단법인 한국가곡문화예술협회 회장(현)
- (사)음악사랑 운동본부 명예총재(현)
- 한국가곡연구회 "산유화" 명예회장(현)
- "우리가곡의 날" 제정위원회 위원장(현)
- 인천시문화상(1959)
- 경기도 문화상(1961)
- MBC방송대상(1987)
- 대한민국방송대상(1991)
- MBC가곡공로대상(1994)
- 한국음악상(1996)
- 세종문화상(1998, 대통령상)
- 서울시문화상(2001)
- 대한민국문화훈장(은관, 2009, 대통령서훈)
- 세일음악문화재단가곡상(2010)등 수상 수훈함



'그리운 금강산' 초기 악보

인천인으로서 인천의 음악을 위하여 역량을 다 쏟아낸 작가 최영섭선생은 인천이 자랑하는 분이다.

중학교부터 작곡발표회를 연 선생은 음악신동의 칭호를 들으며 한 평생 음악에 몰두 83세의 노익장을 과시한 지휘자로서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한 국민가곡 '그리운 금강산' 을 세상에 내놓으셨다. 열정이 끝일줄 모르는 선생님을 모시고 이 난을 장식한다.

-편집자주-

지상갤러리, STORY

인천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기를 바라는 욕심은 넘쳐도 과할 것이 없다. 바다와 하늘, 그리고 물류의 도시 인천이 가야 할 길은 멀다. 그 먼 길에 인천의 인문학은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든 예술이 바로 이 인문학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듯 한 해에 가장 주목 할 만한 전시예술이 걸어진 길을 열어 보고자 한다. 각 협회마다 내세울 가치의 보고는 분명히 있다. 공연예술은 공연예술대로 정지된 몸짓이 있고 문학의 장르는 그만의 story가 있다.

작가 나름대로의 느낌과 정신, 철학, 삶 등이 내포되어 있을 때 그 작품은 무한 의미를 갖는다.

그 의미가 세계로 가고 있는만큼 인천의 브랜드는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편집자 주-



만선



김상순

- 개인전 7회
- 인천광역시 미술대전 초대작가
- 경기미술대전 초대작가

- 관악 현대미술대전 초대작가
- 경인미술대전 초대작가
- 단체전 165회 (국내/외)



상상공간



김혜선

- 1986,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 2001,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과 졸업.
- 현)경인교육대학교 미술과 강사
- 현)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온갤러리 큐레이터

- 개인전 20회(인사갤러리, 조선희랑, 김내현화랑 등등)
- 그룹전(메트로전, 현대미술100인전, 홍익여류화가회전, 인천을 담은 그림전, 찾아가는 미술관, 예쁘고 국제전, 송도 디오아트 갤러리 초대전, 사람과 사람들 전)



자작나무



전운영

- 홍익대학교미술대학서양화과졸업
- 개인전17회(서울, 인천, 제주, 일본)
- 월드아티스트페스티벌(세종문화회관)
- 씨롱드 브랜차전(세종문화회관)
- 신미술회전(인사아트프라자)

- 일본 이브갤러리 4인차대전(요코하마)
- 서울아카데미전(동덕미술관)
- 필아트6인차대전(역삼문화전시관)
- 골든아이 아트페어(코엑스인도양홀)
- 한 · 일 답 전(고베 효고미술관)
- 한 · 중 교류전(부평구, 호로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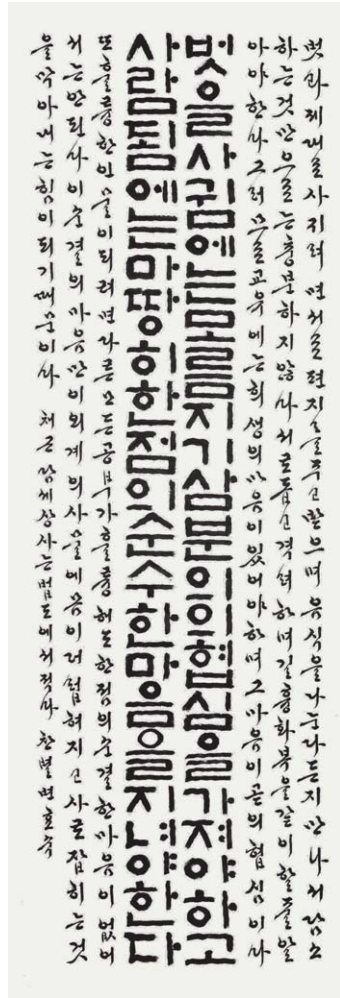
내안의 섬-바람Ⅳ



오정숙

- 홍익대학교미술대학 조소과 및 동교육대학원 졸업
- 개인전 16회
- 「인천미술의 어제와 오늘전」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 기온 갤러리 외 단체전 338회

- 현)인천미협, 인천조각회, 한국조각회, 홍익조각회, 인천 여성조각회, 녹미회회원, 인천시초대작가회운영위원, 인천여성비엔날레이사, 한국미협자문위원, 재인홍익미술 동문회 회장



세상사는 법도



변효숙

- 인하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 졸업
- 인천광역시미술대전 최우수상, 초대작가,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 경인 미술대전 최우수상, 초대작가,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특선3회
- 대한민국서예술대전 우수상, 초대작가, 심사위원
- 서울미술대상전 특별상, 초대작가
- 공무원미술대전 대통령상
- 개인전 4회



추억



김봉섭

-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지회장
- 한사전추천작가
- 저서 : 춤의향연, 휴먼, 등
- 사진모임 인천멀티포토 지도위원



표정



김대성

-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지회장
-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
-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지회 감사
- 인천사진대전 초대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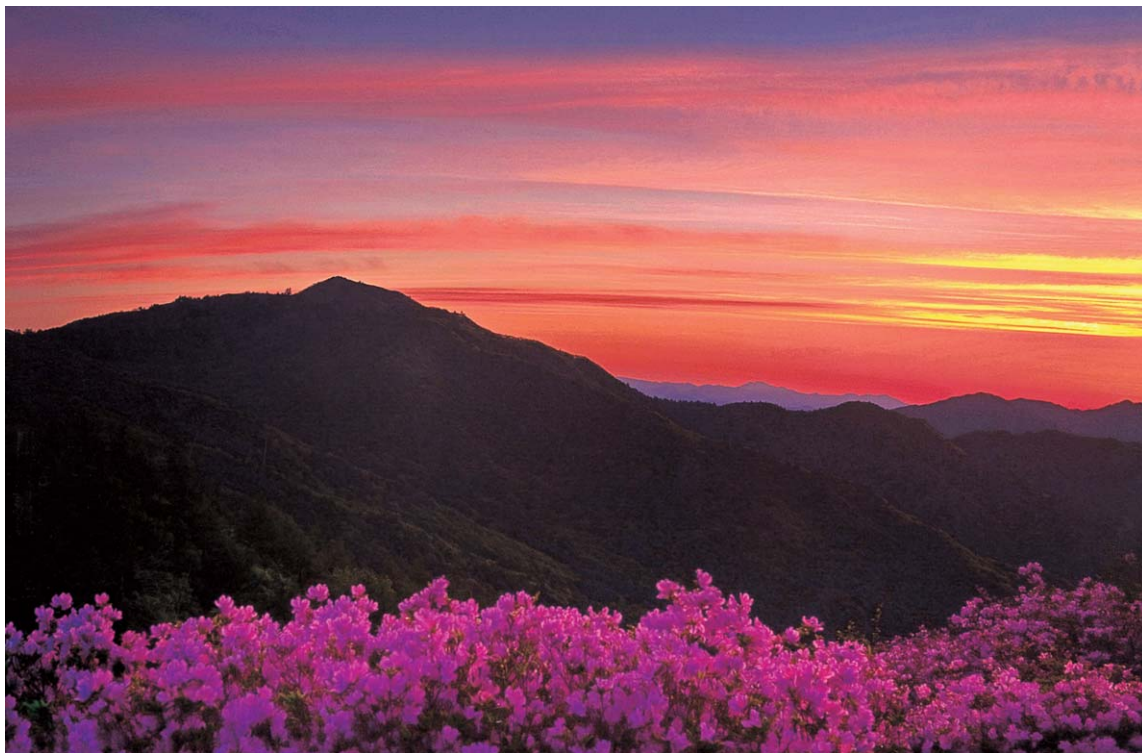


나들이



오명철

-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 인천사진대전 초대작가



바래보의 여명



장영진

-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 한국사진작가협회 디지털분과위원회 감사
- 인천사진대전 추천작가
- 인천교원사진연구회 지도위원



상해묘기



김기술

-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 인천사진대전 추천작가
- 한국사진작가협회 보도분과위원

인천은 인천적이어야 한다.



문화란 사회생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요소로서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치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존재로 예술이 없으면 문화가 있을 수 없고 문화가 없으면 사회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 논리입니다.

예술가들은 수백, 수 천년의 역사 속에서 예술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예술에 대한 존중을 전통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열악한 경제적 여건을 가진 나라들이 예술적 이데올로기가 사라진 사회주의 국가가 더 예술을 사랑하며 예술적 생존에 대해 더 고민하고 가치 상향조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년초, 시민의 선택 인천의 아젠다 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허나 문화예술의 항구적인 의제는 눈을 씻고 봐도 없었기 때문에 질문,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안 보다는 길게 문화 경제와 소통하는 일면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국 속담 한 가지를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폐니를 아끼다 파운드를 잊어버린다” 는 말과 기초예술이 왜 중요한가를 다시한번 상기시켜야 되겠습니다.

임진년 초 4000여 예술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문화예술지원

예산 결과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인천 문화예술을 지켜온 역사도 무시하고 100년 대계의 역사창출에 매진한 9개 협회의 예술 행사 지원금 신청을 배제시켜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소통’을 중시하며 음지와 양지, 극과극의 간격을 좁히는 상생의 정책을 미덕으로 삼으며 추구하고 있으나 이를 망각하며 불균형의 행보를 공공연히 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 사)인천예총은 불편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자 일어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이제라도 반성, 바로잡아 예술인들의 편 가르기 없이 기관은 기관대로의 초심을 잃지 않고 업무에 임하길 갈망합니다.

임진년 첫 호를 내며 독자 제현과 동행의 길을 가는 4000여 인천 예술의 벗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예술인들의 인생은 그 자체가 감동입니다. 예술인이 만들어 낸 작품은 수많은 사람의 공명을 불러일으킬 위대함이 뒤를 겹어오고 있습니다.

상생하고 소중하며 다시금 인천, 인천을 위한 인천인으로 인천의 예술을 발전시켜 나가길 빌어마지 않습니다.

2012. 3. 30

(사)한국예총 인천광역시연합회
회장 김재열

공단통신(工團通信)

1

오늘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사내아이들이 공순아, 공순아 하고 불렀어요. 공순이라고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공장뜨기라고 놀리는 비양거림이지요. 땅에다 눈을 깔고 지나쳤지만 엄마, 별나게 엄마가 보고 싶은 하루였어요.

2

우리창 덜컹거리는 밤이면 영지는 전라도 사투리로 잠꼬대 하고 순이는 무슨 꿈을 꾸는지 자면서도 히죽히죽 웃고 있어요. 밥상만 물리면 잠드는 영자, 밤마다 꿀길을 걸어 고향에 간다는 순이-일당 7백 원에 갓 스물 젊음을 묻은 까칠한 우리들의 잠이 눈물겨워 돌아누우면 목덜미 에어가는 날선 칼바람.



3

우리나라가 백억 불 수출을 이룩했대요. 백억 불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아무도 짐작 못하며 기념식을 올렸어요. 무슨 번영과 영광 같은 알 수 없는 얘기를 장시간 들어봐도 월급 오른단 얘기는 없고 추워서 뽀뽀 발만 얼었어요.

-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조입니다.

사장님 말씀에 허리끈을 바짝 조였는데 똥똥하신 사장님은 어떻게 허리띠를 조이실는지 무척 궁금하고 걱정스러웠어요.



최무영(崔茂榮)
(1947~2005작고)

인천출생.

1973년 <삼우문학>동인, 1974년 <시류문학>동인.

1978년 <표류문학>동인, 1982년 <내향문학>동인.

1989년 인천문인협회 감사.

1990년 아태변호사회 출판국장.

1995년 조류보호협회 근무.

1991년 수필집 『교토 25시』, 1992년 『백두의 인연』,

1993년 『새 이야기』발간.



기획대담 _ “그리운금강산”의 작곡가 최영섭을 찾아서

기획대담의 변

인간은 생하고 몰할 때 까지 걸어온 길이 있게 마련이다. 그 길에서 수많은 흥과 망이 있다. 특히 예술가의 삶은 유난히 밝은 한 시대를 가지게 된다. 근 현대의 척박한 인천 예술계에서 일찍이 개혁정신을 발휘하며 주춧돌을 놓았던 인물을 찾아 부단히 발굴 소개하며 이 기획난은 나갈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역사성과 정체성을 오늘에 불어넣어 후학들의 지표가 되는 인물들이 타도에 비하여 적지 않음이 위안이다. 본 연재는 (사)인천예총의 아홉 개 장르에서 지역예술계에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들의 지나온 여적을 음미하며 앞날에 대한 희망을 들여보는 난으로 계속 발전하고 싶은 심정이다.

따라서 (사)인천예총의 자랑인, 국민가곡 “그리운 금강산”의 작곡가 최영섭 선생님을 모셨다.

선생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편집자 주-

“그리운 금강산”의 작곡가 최영섭을 찾아서

대담 · 김학균, 원고 정리 · 고 춘

선생님의 고향이야기와 강화에서 인천에 오게 된 이야기부터 들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해 ‘인천사람’입니다. 정확히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77번지, 바닷가에서 태어났습니다. 1938년 부친께서 저와 누이의 교육을 위해 강화 나루터에서 바람 불면 뒤집힐 것 같은 배를 타고 인천으로 이사해 1939년 현 인천 동구 화평동 20번지에 본적을 두게 되고 창영소학교로 전학하여 졸업하였습니다.

성장기를 인천에서 보내셨는데 회상을 해 보신다면?

서울로 가기 전, 인천에서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지휘하며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흥예문에 인천부민회관(현재 인성여고 체육관)이 있었는데 (겨울엔)추워서 손가락이 안돌아갔던 생각이 납니다. 여기 종합문화예술회관을 보니 격세지

감을 느낍니다. 얼마 전 ‘커피콘서트’에 출연하여 윤학원씨와 토크콘서트에서 마지막 프로그램 ‘그리운 금강산’ 합창 1절 지휘할 때 너무 감격한 나머지 가슴이 조이고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인천에 오셨죠?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면, 강화 전등사아래 길상소학교 3학년 다니던 제가 인천에 이사와 창영소학교를 졸업했습니다. 5학년 때 6개 반이 있었는데(4개 반은 남자, 2개 반은 여자 반) 제가 6개 반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당시 학교에서 나만큼 제기차기 구슬치기 딱지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때 사진관을 경영하시던 외삼촌이 제 책상서랍에서 제기, 딱지, 구슬을 압수해서 교장선생님께 바치어야한다고 하고 가져가셨습니다. 결국 제가 울며 교장실로 들어가 ‘삼촌이 이걸 교장선생님께 갖다드려야 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하니 교장선생님께서 기특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 6학년 때 6반중에서 1등을 했어요. 꼴찌가 1등을 했다고 화제가 되었지요. 그런데 그 때에도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오면 구슬치기 딱지치기 다 팽개쳐버리고 그 음악을 열심히 들었어요. 구슬치기하려고 양쪽 호주머니에 잔뜩 넣고 가려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지금도 안 잊혀 저요- 들드라의 ‘추상’ 이란 바이올린 곡인데 깊이 빠져들다 음악이 끝나면 다시 구슬치기하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담임선생님과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상담을 했는데 저는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법조계 진출이 강한 경기중학교 보다 예술과 의·예가 강한 경북중학교 진학을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댐 음악을 좋아했지만 전공은 안했군요?

당시 인천중학교 강당에 그랜드피아노가 있

었는데 아무도 쓰지 않고 게다가 먼지가 많아 매일 기름걸레로 닦았지요. 그것을 일본인 체육 선생이 유심히 지켜보다 왜 그렇게 닦고 있는가 문기에 ‘피아노를 치고 싶는데 열쇠로 잠겨있고 먼지가 쌓여있어 닦았습니다.’ 하니 ‘그러면 열쇠를 맡기면 잘 간수 할 수 있겠나? 하여 그러겠다고 하여 큼직한 그랜드연주회용 그랜드 피아노를 열쇠를 받았습시다. 그리고 열심히 연습했고, 레슨도 받았습시다. 그래서 주변에서 모두 피아니스트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중3 때 은사님이 ‘최 군은 손가락이 길지 않아서 모차르트 베토벤까지는 몰라도 쇼팽, 리스트, 라흐마니노프 등의 곡은 감히 연주하기가 어려우니까 작곡으로 가는 게 좋겠다.’ 권고하시어 어차피 작곡을 하려면 피아노 연주력이 꼭 필요하니 주저 없이 작곡가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작곡과 임동혁 교수를 소개받아 해방이 되자마자 당초 가고자했던 경북중학교로 전학하였습니다.

경북중, 고등학교 시절이 작곡가로 들어서는 시기였네요.

작곡 공부를 위해 학교공부 3~4시간을 빼고 나머지는 화성학, 악식론, 악기론, 대위법 등 하루 두, 세 시간 밖에 못 자면서 공부했지요. 1953년경 경북고등학교 다닐 때, 당시 조병화 선생은 서울중학교 수석선생님이셨는데, 서울에서 저녁에 경인선 기차를 타면 보통 밤 1시경에나 도착하는데, 지루하니까 손전등을 꺼내 악보를 펼쳐들고 작곡레슨 과제를 하였는데, 조병화 선생이 옆에 앉으며 ‘뭘하냐? 하시기에 ‘일

주일에 한 번 교수님께 레슨 받는데 과제 때문
입니다' 했더니, 선생이 저보다 10여세 위인데
도 친동생처럼 차만타면 나를 찾았습니다. 자리
가 없으면 기차바닥에 앉기도 했지요. 그런 인
연으로, 조병화 선생이 60여권의 시집을 냈는데
그분의 시 중에서 '추억', '사랑의 날개', '소
리' 등의 가곡을 작곡하였습니다.

*조병화 시인과 인연이 기차통학이었습니다.
중학생 시절 작곡발표회를 하셨지요?*

1949년 경북중학교 졸업할 때쯤 해방이 되어
졸업 무렵 임동혁 교수님이 '미스터 최. 그동안
가곡을 20여 편 정도 작곡했고 피아노 모음곡
환상곡을 그런대로 작곡했으니까, 최 군이 작곡
발표회를 하면 대한민국 역사상으로 최연소 작
곡발표회를 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이라
며 강력히 권유하시어 1949년 6월 4일 제1회 작
곡발표회를 12곡의 가곡과 피아노 모음곡 5곡,
피아노환상곡1곡 등의 작곡발표회를 가졌습니
다. 그때 서울신문에서 중학생이 작곡발표회를
했다고 대서특필하여 스크랩까지 해놓고 있습
니다. 그 후 서울음대 입학원서를 교장선생님께
가져 가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더니, 교장선생님
은 저에게 의과대학을 가라는 거예요. 자화자찬
이지만 영어하고 독일어를 그런대로 잘했거든
요. 그래서 저는 '전 이미 중학생 시절 작곡발표
회까지 했습니다. 음악가의 길을 바꿀 수 없습
니다.' 라고 간청을 했지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기악, 성악 포함해서 1등으로 입학
했습니다.

당시 스승님은 위독하시지만, 지금도 살아계

신 김성태 박사님(104세)이십니다. 저보다 20년
위시고, 지금도 매년 세배를 가깝니다. 선생님
이 더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지 선생
님의 그림자라도 뵈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
고요, 김성태 선생님이나 첫 번째 경북중학교
때 임동혁 선생님 함자만 나와도 차렷 자세 하
고 싶을 정도입니다.

결혼은 언제하셨습니까.

제가 KBS 방송국 시절 전, 인천에서 6.25직후
에, 외아들이어서 부모님이 결혼을 재촉하셔서
인천에서 결혼했고, 5.6년 만에 아들 셋을 두었
지요. 그래서 세상 떠난 집사람이 부모님의 귀
여움을 많이 받았어요. 며느리가 아니고 친딸같
이 귀여워 해 주셨는데, 우연히 집사람 얘기가
나왔네요. 작곡가에게 시집와서 호강도 못시켜
주고 세상을 떠난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집
니다.

*인천에서 교사도 하시고, 음악계에서 활동도
하셨는데 당시 활동과 교분을 쌓으셨던 분들의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인천여중에서 음악교사를 할 당시, 1957년 중
구 송학동 인천시민회관에서 지금의 인천시향
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관현악단 의 창
단연주회를 지휘하였습니다. 나중에 유명해진
피아니스트 백건우씨(당시 배재중1학년)가 그
리그 피아노협주곡을 협연했고,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을 연주하였습니다. 제가 서울
로 이사 가기 전 1964년 봄까지 지휘했지요. 한
편 내리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고, '인천시

합창단'이라 해서 간판에다가 '인천시' 하고 한 칸 떼고 '합창단'이라했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시립의 '립'자가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 후일 지난 지금 윤학원 선생님이 지휘를 하고 있는 인천시립합창단이 되었지요. 인천시립합창단의 전신격인 인천시 합창단을 위하여 열심히 한 시절을 생각하니 고향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람 있는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인천시민의 노래'를 1957년경인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작곡을 했어요. 당시엔 그 노래를 열심히 불러주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인천시민의 노래를 인천시민들이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좀 더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작고하신 최성진 선생과 부인 소프라노 김정순 님. 장광순씨(신신예식장)의 누이동생 장보원씨. 연대음대 피아노과 수석교수였던 장보원 교수는 공연할 때마다 같이 협력해주셨고, 바이올리니스트 박진태, 테너 백석두, 한때 유명했던 김동석 씨도 열심히 활동 하신 분들입니다. 문학계에서 한상억 선생을 비롯해 조수일 선생, 서예에서 검여 유희강, 동정 박세림, 우초 장인식, 미술계의 김학순, 강창희씨 등 모든 분들이 자기분야만 옳다고 하지 않고 음악회를 하면 전부 모였습니다. 미술전람회 열어도 마찬가지로. 끝나면 꼭 대포 한 잔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저는 서울로 이사가, 38세 때 겨우 맥주를 한 잔 입에 대 봤어요. 그때 제가 약주를 할 수 있었다면 그 분들하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어울렸을 거예요. 당시

인천시장으로 표양문, 박학전, 박경원, 김정열 씨가 있었는데, 문화예술지원예산이 없어도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도와주니까, 설사 백만 원을 도와주어도 1억 원을 도움 받는 생각으로 고맙게 여겼어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시 예산이 전무하니 이렇습니다.' 하며 같이 자리에 합석하시던 생각이 납니다.

국민가곡 그리운 금강산을 만드신 인천인 한상억 선생님과과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한상억 선생님과 제가 태어난 곳이 800-900미터 떨어진 강화 화도면과 양도면인데, 인천에서 만나 고향이 한 동네였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상억 선생이 예총경기도 지부장을 하실 때입니다. 1958년부터 KBS 가 남산에 있을 때였지요. 그 시절 방송프로그램에 '이주일의 노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시인에게 청탁하고 작곡이 나오면 작곡가에게 청탁하여 작곡이 완료되면 합창으로 편곡하고 오케스트라반주로 녹음해서 한번 녹음한 것을 일주일 내내 하루에 8번씩 방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하루에 4번 세 번째 주에는 하루 두 번씩 방송했습니다. 이때 한상억 선생님의 '한강물 마르지 않고'를 작곡했더니 요즘으로 말하면 준 히트예요. '낙동강 부딪친 곳'을 작곡 했더니 KBS에 팬레터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KBS 에서는 한상억씨에게만 시를 부탁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한상억씨의 '압록강은 흐른다', '백두산은 솟아있다'를 곡으로 썼더니 해외에서 까지 단파라디오로 곡을

들은 동포들이 고국을 생각하며 편지를 보내주 시기도 했지요.

그리운 금강산 가곡을 만들게 된 동기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번은 KBS에서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을 작곡한 동요작곡가 한용희 씨를 국제방송국 앞 산길다방에서 만났는데, ‘최 선생 한강 노래, 낙동강 노래, 백두산, 서해조기잡이, 따뜻한 남해, 동해의 해돋이노래 다 있는데 왜 금강산노래가 없습니까?’ 라고 하시는 겁니다. 순간 ‘아차! 하는 생각으로 그길로 인천에 내려가서 한상익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한상익 선생이 그렇지 않아도 금강산에 관한 시를 벌써 써놨어요. 조금 다듬어 언젠가 최 선생님에게 드리려고 하던 참이라고 하면서 울목동 서재에서 그걸 주셨어요. 보는 순간 멜로디가 떠올랐습니다. 여기 초고를 가지고 나왔는데 1961년 8월 26일. 아주 귀중한 초고입니다. 첫 번째 ‘그리운 금강산’ 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날 KBS 국장에게 가서 내가 이런 시를 받았다고 했더니 빨리 작곡하라고 재촉하면서 이번 토요일에 녹음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밤 주선율과 반주를 완성하고, 다음날 오케스트라 반주, 다음날 합창 편곡을 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일일이 손으로 관현악 각 파트 악보를 완성해 KBS 교향악단에 전임 사보 담당 최건 씨에게 ‘빨리. 내일 오전 중에 녹음해야 하니.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부탁한다.’ 고 하였습니다. 잠시 난감해하다 ‘최 선생님이시니까 합니다.’ 하고 다음날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하는데 합창단, 교

향악단 단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1주일간 방송하였는데 KBS 역사상 팬레터를 그렇게 많이 받은 것은 처음이래요. 저로서는 영광이지요 1주일 후 KBS에서 사례금을 주는데 화폐개혁이 된 해, 1961년도에 50원짜리 지폐, 이것 한 장 만져보기 힘든 시절에 새 돈으로 2000원을 받았습니. 녹음에 참여한 지휘자 연주자 다함께 저녁에 명동 ‘송도집’ 이라는 막걸리 빈대떡집으로 가서 실컷 먹고 마셨는데도 사례금이 거의 다 남을 정도로 그만큼 2000원이 컸어요.

‘그리운 금강산’ 가사에 얽힌 사건(?)이 있었지요?

과거엔 북한을 ‘괴뢰, 빨갱이, 악질이고 나쁜 사람’ 으로 표현했는데, 1972년 남북적십자회담이 시작되면서 중앙정보부 문정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머지않아 한국의 예술단체가 평양에서도 연주하고 북한에서도 내려와서 친



선연주도 할 텐데, 그리운 금강산 2절 가사를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상익 선생님께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짓밟힌 자리’ (→예대로인가), ‘우리가 맺힌 원한’ (→우리 다 맺힌 슬픔), ‘더럽힌 지 몇 몇 해’ (→못 가본지 몇 몇 해) 등으로 가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가사자구 수정해도 북한에 몰살당한 가족 성악가들은 절대 고친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여 전화로 ‘지금 남과 북 서로 협력해 통일모색하고 있으니까 수정한 가사로 노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곡가로서 부탁드립니다.’ 했죠. 그리운 금강산은 한상익 선생님이 울목동에서 작사 하시고, 저는 지금의 남구청자리, 당시 교대교문 길 건너 언덕 마루턱에 살 때 작곡했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나무도 어우러지고, 밭도 있고, 5.6월에는 파란 초원이 있었습니다.

그 후, 1962년에 KBS TV방송국이 생긴 해입니다. 황규호씨가 ‘그리운 금강산’을 포함해 서곡, 백두산은 솟아있다, 압록강은 흐른다, 낙동강 굽이친 곳, 한강물 다시 흐르고, 서해조기잡이, 따뜻한 남쪽나라, 동해의 바다 등을 합한 11곡으로 구성된 교성곡(칸타타)을 공연 할 것을 제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오 아름다운 내 강산’으로 하고, 서울시공관 예술극장에서 KBS 교향악단, 연합합창단, 솔리스트 4명이 1962년 8월 14일 광복절기념으로 대대적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운 금강산’은 세계적인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 성악가 안젤라 게오르규, 플라시도 도밍고, 조혜경, 조수미, 볼쇼이 합창단, 프랑스 드 파야 목관 합주단 등이 CD와 DVD에 수록했

고, 2002년 월드컵 폐회식 때 요코하마에서 스리 테니와 한국 성악가3명 등 6명이 노래했는데 전 세계 7억 인구 중 6억이 보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서울 한 구석에서 TV를 보았습니다. 허허... 참, 그 한곡이 그렇게 유명해 졌으니.

본인의 가곡 작품 중에 ‘그리운 금강산’이 대표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 나이 85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 만큼 했어요. 가곡집은 제가 가장 많이 출판 하고 곡수도 최고입니다. 다만 숫자적으로 능가한 분이 한분 계세요. 교육 사업을 거느리고 있었던 그분은 본인이 휘파람을 불면 가까운 교수님이 악보를 베끼면서 화음을 붙여주고, 피아노 반주도 만들어주고 해서 숫자가 많아졌지요. 그분을 제외하고는 400곡정도 순수예술가곡을 작곡한 사람은 저하나 밖에 없습니다. 뭐 많다는 것이 꼭 장점은 아니지만.

저는 그리운 금강산이 제 대표작이라고 생각안 해요. 가곡작곡집 하권에 있는 ‘목계장터’, ‘낙엽을 밟으며’ 이 두곡이 한국적인 가곡으로서 제 대표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악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과거 인천 음악계를 회상하시면서, 바라는 것이 있으시다면 어느 것이 있을까요?

옛 중구청 건너편에 해방 직후 미군정때 ‘토치(Torch)클럽’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독립유공자 후손 안원생씨가 운영하다가 6.25전쟁 후 ‘한미 문화원’이라고 미국이 운영했었지요. 그러나 한미 문화원이 없어지고 예총에서 임시관

리 했는데, 나중에 경제적 부담으로 예충이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공보관이네요. 거기에서 작고 알찬 행사가 많았죠. 연주회, 음악감상회도 해서 서울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돌아가신 정의석 선생이나 KBS교향악단 초대상임지휘자, 인천시립교향악단을 지휘하셨던 임원식 선생, 이런 분들이 와서 감탄했지요. ‘공보관’이라는 이름은 1963년에 생겼습니다. 인천시에서 예충 인천지부에 등기를 넘기면 되었는데 그런 사정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박학전, 박경원 시장도 저 건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술인들에게 주어야 되겠는데, 소유관계가 복잡해 할 수 없이 예충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는데, 테이블을 치며 예술과 학술, 사상에 대해 격론을 나누었던 수준 높은 문화예술계의 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곳이 인천 공보관이었습니다. 인천이 그런 고장이었는데, 요즘 지나치게 경제적인 쪽으로만 치중하고 정신, 문화적으로 부족하게 보이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향 시립합창단이 중심이 되어 굳건히 잘해나가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국을 다녀 봐도 서울과 대등한 도시는 인천 밖에 없습니다. 음악 뿐 아니라 문화예술계 전반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화려한 도시보다는 정신적으로, 예술적으로 깊이가 있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천의 대학에는 예술대학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요?

인천은 서울과 가까워 순수 음악대학, 미술

대학, 연극대학이 없는데, 인천의 송도 신도시도 그렇고 이정도로 발전했다면 종합예술대학이 없는 것은 수치입니다. 인천 송도에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가 건립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인천이 자랑하는 자랑스럽고 경쟁력 있는 브랜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필로그

유럽의 음악도시를 세 차례 방문하면서 어떤 노래비나 동상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노래비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것이 제일 큼니다. 이것을 기네스북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오스트리아 비엔나 가면 베토벤과 슈베르트가 산책하던 가로수 길 우물가 옆에 보리수가 있는데, 옆 가로세로 1미터 정도의 슈베르트 노래비 (겨울나그네 중 ‘보리수’)를 보러 1년에 600만 명이 보러옵니다. 그리고 근처 여관에서 묵으면서 춤도 추고, 슈베르트 베토벤을 생각합니다.

제 건강이요? 뭐 조그만 암이 있다고 하는데 의사선생님은 맥주 한 잔씩 해도 150세까지는 산다고 합니다. 제 건강의 비결은 낙천적인 태도입니다. 짜증이 내려해도 차라리 웃어버립니다. 잠 잘 자고, 하루 2식 합니다. 저같이 음식 잘 먹고, 잘 웃고, 화 안내는 사람이 없어요. 인천에 전철타고 왔다 가면, 시간 잘 지킬 수 있어요. 인천시민여러분 행복하세요. 늘 저처럼 웃으세요.

논단

- 創造的인 寫眞家 2(Andreas Feininger 1975)
- 개항과 인천의 국악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비평문화란 곧 지역의 예술계의 척도랄 수 있다. 각 지역의 예술이 옷 자랄 수 있는 밑거름은 바로 비평문화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다.

오마주의 3가지 키워드 바로 비평이 살아 있을 때 전도유명한 예술의 면적이 넓어질 것이다. 그리고 반전, 비교가 기반으로 살아있는 터를 만들기 위하여 「예술인천」은 넓은 지면을 부여할 것이다. 향토예술을 채찍질하며 성장시켜갈 의무와 권리, 다같이 갖고 좋은 글을 올려주길 빌며 독자들 께서도 심 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사진의 묘를 찾는 길을 열어보려 한다.

임무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인천국악의 회고와 전망, 그리고 내일을 볼 수 있는 이정표를 설정해 보았다.

이 란은 각 협회의 역사만큼 계속 되어 질 것이다.

-편집자 주-

創造的인 寫眞家 2

(andreas feiningер 1975)

글 · 임무택

3. 사진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

대개의 사진가들은 촬영할 주제를 미리 정해 놓고 촬영에 들어간다. 그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은 주제이고, 사진은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주제는 사진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중핵적인 역할을 하며, 사진 제작에 동원되는 다른 요소들—기자재와 테크닉, 구도, 스타일—은 사진 영향력과 가치를 결정함에 있어 종속적인 역할을 할 따름이다. 주제는 사진 매체의 고유한 특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접근방식은 사진가의 개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1 주제의 종류

현대의 사진기술은 고도로 완벽하고 또 신축성이 많기 때문에 사진으로 촬영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는 거의 없다. 미세한 세균에서 우주의 은하(銀河)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주제가 그렇게 많은데도 흥미롭고 충격적인 사진은 드물다. 이

유는 사진가의 능력 부족이거나 주제가 비사진적이거나 주제가 관람자의 흥미를 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 사진적인 주제와 비사진적인 주제

사진적인 주제의 특성 - 일반적으로 생동감이 있거나, 색다르거나, 경이로운 주제들은 생기가 없거나, 너무 흔하거나, 너무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보다 흥미있는 사진을 만들 가능성이 많다. 사진적 특성을 많이 지닌 주제는 사진의 형식으로 표현되었을 때 빛나는 결과를 낳는다.

- 단순성, 질서, 명백성, 강하지만 지나치지 않는 콘트라스트
- 뚜렷한 디테일, 생생한 질감, 단순하고 대담한 형태
- 암시적이고 분명한 윤곽, 패턴, 리듬, 연관된 형태의 반복
- 생동감이나 액션을 암시하는 동작, 주제가 살아 움직이는 경우의 자연스러움
- 클로즈업 기법, 망원렌즈, 백 라이팅.

비사진적인 주제의 성질 - 통상적으로 정적(靜的)이거나 활력이 없는 주제는 동적이거나 생동하는 주제보다 좋은 사진을 만들 가능성이 희박하다. 사진에 너무 자주 등장하는 주제는 아무리 그것이 사진적이라도 너무 흔하여 주의를 집중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 복잡성과 무질서, 콘트라스트의 결핍, 전경(全景), 부적당한 배경
- 문학적인 주제, 포즈 취하기, 위조나 연출, 원거리 촬영

■ 다이나믹한 주제와 정적(靜的)인 주제

다이나믹한 주제 - 다이나믹한 주제의 특징은 운동과 액션이다. 자동차 경주, 권투경기, 축구 시합, 놀고 있는 어린이 등은 형태의 배열, 조화, 중복 등이 끊임없이 변한다. 야생동물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몇 시간, 며칠 또는 몇 주일이라도 참고 기다리며 접근해야만 위치, 범위, 광선, 배경, 포즈 등이 제대로 갖추어진 일순간을 포착하게 된다.

-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야 한다.
- 고속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사용해야 한다.

정적인 주제 - 이 주제들의 특성은 부동성으로 동적인 주제를 묘사할 때보다도 더 많은 시간의 여유를 갖고 촬영에 임할 수 있으므로 기법상의 문제에 더 집착할 수 있다. 즉 대형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고, 깊은 피사계심도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며, 조명, 위치, 배경 및 구도와 같은 중요한 요소를 섬세하게 컨트롤 할 수 있다.

- 풍경, 나무, 정원, 꽃, 빌딩과 실내
- 예술품에서 산업제품에 이르는 인공물
- 격식을 중시하는 포트레이트와 포즈를 취

한 패션사진

■ 문학적인 주제와 관념적인 주제

문학적인 주제 - 언어에 의해서만 적절하게 표현될 수 있는 주제이다. 이면에 어떤 숨은 이야기가 깃들여 있는 전쟁기념상(戰爭記念像)은 무미건조하고 예술적 가치가 없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있을 뿐이고 흥미는 거기에 깃들고 있는 이야기에 담겨 있다. 전쟁으로 인하여 인명이 희생된 원인, 전투의 걱정, 한탄 등은 촬영이 불가능한 것이지만 언어로 표현되면 큰 효과를 내게 된다. 또 유명한 위인이 탄생한 생가처럼 '역사적 흥미'는 있으나 외관상으로 별 특징이 없는 사물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

관념적인 주제 - 사람과 물체는 구체적인 주제이며, 감정과 무드는 무형적인 주제이다. 앞에서 문학적인 주제의 전형(典型)이라는 전쟁기념상은 사진가에게 과거의 군생활에 대한 추억이나 한 병사로서 체험한 감정 등을 환기시켜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사진에 반영하려면 상징적인 형식을 빌릴 수밖에 없다. 가령 그 동상이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먹구름 틈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햇살을 받아 시꺼먼 실루엣으로 묘사되었다면, 구름의 암흑은 전쟁의 위압을, 그리고 강한 햇살은 장래의 승리를 암시하는 격이 되어 화면은 극적인 감정으로 충만할 것이다.

이처럼 '독창적'이란 평가를 받을 만한 사진은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힘든 것을 상징적인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사진가들은 끊임없이 심성적(心性的)인 것을 사진으로 표현해야 할 필요를 느끼며, 사진가가 이런 심성을 얼마만큼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의 감수성, 예술적인 차원, 상상력 및 기술적인 재능을 평

가하는 것이다.

■ 부제(副題)

대개의 경우 사진가들은 사진의 기본 요소인 주제뿐만 아니라 부제라 하는 2차적인 요소들도 화면에 포함시킨다. 부제에 속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은 배경, 전경(前景), 하늘, 지평선이다. 대개의 사진가들은 이것들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나머지 그러한 사진요소에는 별반 주의를 기울이지 않지만, 그러나 부제가 주제의 인상을 강화시키는 수단이라는 점과 이것들을 적당히 통제하면 월등한 화면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배경 - 배경은 주제를 돋보이게 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배경은 톤 밸류에 있어서나 화면 구성에 있어서나 주제에 대하여 종속적인 위치에 머물러야 한다. 동시에 그것은 주제가 가장 유리한 입장에 서도록 밀반침해야 한다. 흑백사진에서는 주제가 어두우면 배경은 밝게 주제가 밝으면 배경은 어둡게 그리고 주제가 중간 색조이면 배경은 그보다 밝거나 어둡게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다.

칼라사진에서 주제와 배경이 구별되는 것은 색깔이 차이 때문이지 흑백사진에서처럼 명암의 콘트라스트가 있기 때문은 아니다. 칼라사진에 가장 적합한 배경색은 백색 또는 명도가 밝은 베이지나 회색이다. 비선예성과 끌림은 주제와 배경을 식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편이 되어 준다. 일반적인 방법은 주제는 선명하게 그리고 배경은 흐릿하게 끌린 상태로 묘사하는 아웃 포커스나 팬닝 기법을 구사하는 것이다.

전경(前景) - 전경은 주제의 일부이거나 주제보다 앞쪽에 있는 주변 물체이므로 접근감을 암

시한다. 앞쪽은 과장하고 뒷쪽은 축소시키는 성질이 있는 광각렌즈를 사용하면 전경을 과장시켜 강렬한 접근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광각렌즈에 의한 퍼스펙티브의 두드러진 특징은 매우 깊은 심도감(深度感)을 느끼게 해주는 점이다. 심도감을 조성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가까운 물체와 먼 물체를 대비시키는 일인데, 이때 가까운 물체는 전경의 구실을 한다.

하늘 - 하늘은 풍경사진의 주요요소 중의 하나가 되는 수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가들은 대개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사진에 구름을 몇점 넣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하늘이 빛는 모양과 무드의 끊임없는 변화가 사진의 특징과 무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해질 무렵에 한해서

하늘의 일부는 청록색(靑綠色)이나 남옥색을 띠는 수가 있지만 대체로 하늘은 녹색을 제외한 모든 색깔을 떨 수 있는 것이다. 구름이 몇점밖에 없는 푸른 하늘은 언제 보아도 상쾌한 느낌을 주지만 이것이 사진으로 표현되면 그저 그렇다는 느낌을 줄 뿐이다. 그래서 흥미있는 사진을 만들려면 하늘의 상태를 잘 골라서 묘사해야 한다.

지평선 - 지평선이 화면에 들어가는 경우 그것은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지평선이 화면을 하늘과 땅으로 분할하는 비율에 따라 사진



의 인상이 확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늘이 많이 차지하면 공간감, 공기감, 영혼감 등이 지배적이고, 땅이 많이 차지하면 접근감, 세속성, 물질감이 강조된다. 구도의 측면에서 볼 때, 화면은 지평선에 의해서 분할되는데, 어느 한쪽이 화면을 많이 차지할 수록 인상이 강렬해지며 그 차이가 작을수록 그런 감정이 덜해진다. 지평선이 화면을 양분하는 경우에는 정적이고 단조로운 구도가 만들어진다. 이런 구도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단조로운 사물의 싱거움을 강조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3-2 주제의 선택

어떤 주제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사진 제작의 전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포인트 중의 하나이다. 불행하게도 너무 많은 사진가들이 주제의 각종 유형 중에서 어느 것에도 특별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의미하거나, 진부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신물 나도록 써먹은 주제와 싸우느라고 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사진가의 창의성의 수준과 취향은 반드시 그의 작품에 반영되게 마련이다. 흔하고 뻔한 주제를 다룬 특징 없는 사진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은 상상력의 결핍이다. 그런가 하면 창조적인 사진가의 작품에서는 주제의 엄선, 그에 대한 독창적인 접근방식, 그리고 과감한 기술처리 등을 읽을 수 있다.

주제의 선택은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마음으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은 창조력과 상상력에 토대를 두고 주제 속에서 촬영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무엇인가를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찾아내려는 통찰(洞察)이다.

다시 말하면 상상력을 통하여 새로운 의미, 새로운 개념,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는 작업이다.

상상력은 주제의 선택과 다양한 표현방법을 찾는데 집중되어야 한다. 감동적인 충격을 주는 주제와 간결하고 직접적인 표현방법은 주로 예술적인 상상력이 우세한 사진가들의 매력을 끌고, 특수렌즈, 현미경 사진, 적외선 필름, 편광의 특수성과 같은 색다른 기재와 테크닉은 주로 기술적인 상상력이 우세한 사진가들의 이용대상이 되고 있다.

좋은 사진을 만들고는 싶지만 어떤 종류의 주제를 다룰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사진매체가 갖는 두 가지 측면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자기의 기질이 기술에 가까운지 아니면 예술에 가까운지에 따라 이 접근 방법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매진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다.

■ 과학적인 기구로서의 카메라

인간 - 인류학과 민족학 : 현대의 인간, 인종, 문화, 사회 풍습과 제도의 연구

- 종교의식 : 토속 신앙에서 기독교에 이르기 까지.

복식(服飾), 민속, 춤, 축제 등

자연 - 동물학 : 포유동물, 조류, 파충류, 양서류, 물고기, 곤충과 거미류(상상 이상으로 희한한 그들의 세계, 신기하고 아름다운 형태, 매력적인 행동). 바다조개의 구조미, 종류가 수없이 많은 하등생물, 현미경이 펼쳐 주는 신비로운 세계 등등.

식물학 - 꽃과 과일의 색채와 모양, 식물이 열, 가뭄, 폭풍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 식물의 신비로운 생식기관, 나무와 씨앗의 구조미.

지학(地學) - 산, 들, 강, 호수, 바다의 풍화작용, 결정체의 기하학적 정교성.

생태학 -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간의 상호관계와 상호 의존성, 사람이 야기한 환경문제 (폭발적인 인구 증가, 파괴적인 과학기술과 이것이 토지, 물, 공기,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과학 - 천문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해양학, 기상학, 내일의 세계를 탐구하고 발견하고 개척하려는 사람들의 영역이다.

인류의 창조물과 세계 - 고고학(考古學), 제조업, 제철공장, 조선소, 그 밖에 각종 공장. 도시의 복합적인 유기성, 도로와 교량, 주택, 인공적인 풍경(갈고 씨뿌린 밭, 수확하는 장면, 발전소의 댐, 탄광 등). 농장, 촌락, 등.

■ 예술가의 도구로서의 카메라

인물 - 포트레이트. 전시(戰時)나 평화시의 인간의 감정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표현하기.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 일하거나 놀고 있는 사람들. 생의 환희와 비애.

감정과 무드의 해석 - 이것은 상징적인 사진의 영역이다. 주제 그 자체는 직접 사진으로 표현되지 못하는 관념성을 시각적인 형태로 표현하게 해주는 매개물에 불과하다. 이를테면 아름다움, 사랑, 증오, 폭력, 공포, 절망, 외로움, 슬픔 등등.

예술적인 개념과 실험적인 사진 - 이것은 시각표현의 새로운 기법과 테크닉을 실험하는 사진가들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예술가의 분야이기도 하다. 이 계열의 사진은 보통 사진과는 달리 매우 충격적이며, 종종 격렬한 토론의 대상이 되며, 보수적인 사진가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독창적인

사진가가 개발한 새로운 기법과 테크닉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드리고 이용한다.

3-3 흑백이나 아니면 칼라냐?

필요한 기재와 기술을 갖추고 있는 사진가는 하나의 주제를 칼라로 찍을 수도 있고 흑백으로 찍을 수도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 흑백으로 촬영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 칼라로 촬영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흑백과 칼라의 선택은 표현의 비중을 추상성(抽象性)에 두느냐 아니면 재현성(再現性)에 두느냐에 따라야 한다. 물론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지만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에 따라 선택하는 바람직할 것이다.

■ 재현적인 칼라나 아니면 추상적인 흑백이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주제를 흑백으로 묘사할 것인가 아니면 칼라로 할 것인가를 정하기에 앞서,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할 것인가 아니면 추상적으로 표현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진의 목적과 주제의 특징에 따라 좌우된다. 사진의 목적은 단순한 내용의 설명일 수도 있고 작가의 해석적 표현일 수도 있다. 설명에 치중하는 경우 주제의 갖가지 특성을 기술이 허락하는 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경우 분명히 칼라가 흑백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반면에 설명보다는 해석적 표현에 역점을 두는 경우에는 칼라보다 흑백을 사용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흑백이라야 직접적인 표현이 불가능한 뜻으로 어차피 주관적인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주제의 특성을 창의적으로 상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의 주제는 구상적(具象的)일 수도 있고 관념적(觀念的)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리얼리스트해야 하며 칼라로, 후자의 경우에는 추상적이어야 하며 흑백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 색채가 제대로 표현될 것인가?

위에서 특정한 주제는 칼라로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칼라필름에는 다소 결함이 있기 때문에 특정조건에서만 만족스런 결과를 얻는다.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색채가 이상하게 나오고 색채가 이상한 칼라사진은 좋은 흑백사진만 못하다.

- 사용 광선의 색온도와 칼라필름의 색온도와 일치하지 않을 때.
- 주제의 명암 콘트라스트가 지나치게 심할 때.
- 주제의 색조가 진하지 않을 때.

이 조건 중의 하나 또는 몇 개가 현실일 경우 칼라사진을 찍는 한편으로 실패에 대비하여 흑백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다. 주제가 인공물일 때는 색채가 임의로울 수 있기 때문에 관람자는 심한 이상감(異狀感)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주제가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일 때는 관람자가 비교의 기준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색채편차를 의식하지 못하고 넘어간다.

반면에 사진의 주제를 관람자가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본래의 색깔에서 조금만 빛나가도 색채 이상감을 느끼게 된다.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인물사진(포트레이트)인데, 정상적인 피부색에서 조금만 편차가 생겨도 언짢게 생각되기 때문이다. 꼭 칼라로 촬영할 필요가 있을 때는 주제의 색이 그대로 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창조적인 사진가

4-1 사진가가 되는 길

탁월한 사진가가 되느냐 못되느냐의 관건은 오로지 사진가의 사진관(寫眞觀)에 달려 있다. 사진은 최종 목표이며, 주제는 사진촬영의 동기이며, 카메라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훌륭한 사진가가 될 수 없다. 사진제작의 메카니즘은 주제와 그에 관한 흥미를 떠받드는 종속적인 입장이어야 하며, 흥미는 흥미가 있는 곳(주제)으로 쏠리게 마련이다.

특수 분야에 전념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아무튼 사진가는 한 곳으로의 집중을 통하여 특수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경향이 농후하며, 그런 사진가는 마침내 만능 사진가와는 달리 특정 주제에 관한 지식과 표현기법에 통달하게 되므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런 전문가는 더 많은 경쟁을 치러야 할, 다방면의 사진가보다 훨씬 쉽게 자기 직업의 일인자가 될 수 있다.

프로 사진가는 사진을 삶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사진의 대가(代價)에 크게 마음 쓰지 않으며, 하지 않으면 행복을 느끼지 못하기에 어차피 해야 하는 일로써 생계를 세우는 까닭에 스스로를 행운아라 여긴다. 프로가 됴므로써 생계수단이 되어버린 취미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4-2 사진가의 자질

■ 창조적 충동

인간에 내재하는 가장 신비한 힘 중의 하나가

창조적 충동이다. 인류는 이미 선사시대로부터 이런 창조욕(創造慾)을 보여 왔으며, 우리의 문화는 바로 이 창조력에 의해서 쌓아 올려진 것이다. 이러한 창조적 충동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이라야 참으로 위대한 사진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성적 충동이나 식욕과 같은 본능으로서 다만 존재할 뿐이며 발산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다.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창조력의 용솟음을 의식하는 사람은 그것을 잘 살리고 발전시켜야 마땅하며 나아가서는 인류의 문화 축적에 한 몫의 공헌을 해야 한다.

■ 관찰력

사진가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눈과 카메라의 시각이 다르다는 점이다. 눈은 두뇌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보는 반면 카메라는 파인더에 들어온 전부를 기록한다. 사진가는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스스로 연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주제가 자기의 주된 관심거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제의 중요한 특성을 놓치기 쉽다. 관찰력을 발달시키는 좋은 방법은 어떤 사진이라도 좋으니 그것을 훑듯 보고 그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해 보는 일이다. 이제까지 수많은 특징을 간과하였음을 알게 될 때 깜짝 놀랄 것이다. 각종 주제를 다룬 다양한 사진을 이런 식으로 계속 분석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관찰력은 점차 예리해 질 것이며 드디어는 미세한 표현까지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다.

■ 상상력으로 볼 수 있는 능력

사진가로 하여금 이제까지 남에게서 배운 모든 지식을 초월하여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창조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상상력이다. 불행하게도 사진의 주제는 대체로 비슷하지만, 하나의 사진이 종류에 관계없이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는 것은 주제 때문이 아니라 사진가가 타고난 독특한 개성 때문이다. 이 독특하면서도 바람직한 특성이 바로 상상력이다. 상상력을 계발하는 좋은 방법은 정신의 훈련으로 같은 주제를 다른 방법으로 묘사하기, 사진의 기법을 달리 적용하기 등을 상상하는 것이다. 잠재적 상상력을 계발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상상력이 풍부한 사진가들의 작품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일이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타인의 사상이나 작품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예술가는 하나도 없으며, 그런 감화(感化)는 모든 독창적인 사람들의 예술적 성장과 발전에 필요 불가결한 촉진제이다. 누구를 막론하고 독창적인 사람은 그의 성격, 기질, 흥미, 감수성 및 취향에 따라 결정되는 일정한 패턴에 따라 예술적 성장을 하게 되며, 자신의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 독창적이고 독자적인 사진가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다.

■ 실험할 수 있는 능력

사진가들이 실험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자기의 도구, 재료 및 기술에 통달하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새로운 조형적인 표현양식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사진 장비와 재료의 정확한 사용법은 거기에 동봉된 설명서에서 배울 수 있지만, 이 설명



서는 상세한 모든 방법이 실려 있는 경우가 드물다. ‘전문가’에게 필요한 지식은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작품의 질을 향상시키기를 바라는 사진가는 실험을 통하여 필요한 지식을 몸소 체득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실험을 하는 첫째 이유는 필요성 때문이고 둘째 이유는 어떻게 보면 호기심 때문인데, 호기심이란 모든 창조적인 사람이 타고나는 것으로서 자기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 한 굵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재보고 싶다는 소망이다.

새로운 표현방법을 모색하는 실험이 당장 ‘실용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사진가의 예술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오늘날 사진가들이 감정, 개념,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 참신한 방법을 탐색하는 것은 스트레이트한 사진술을 새로운 기법으로 대체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진술의 영역을 넓히고 또 시대정신에 맞는 사진을 만들려면 그 이상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3 사진 제작론

사진가가 우연히 마주치게 된 굉장한 사진을 찍는 것은 예외이지만, 훌륭한 사진의 창조는 계획이 뒤따르는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된다. 사진가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데,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사진의 목적을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즉 사진을 통하여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주제의 어느 특징을 포착하여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기록할 것인가? 관람자가 이 사진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관람자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등등.

사진을 창조하다 보면 두 가지 측면의 문제에 봉착하는데, 하나는 카메라 쪽에서 발생하는 기술상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작품 속에서 발생하는 편집상의 문제이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사진가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주제선택), 민감해야 하고(감정이나 무드에 민감함), 관찰력이 날카로와야 하며(주제의 특성), 이성과 이해력이 있어야 하며(주제의 가치평가), 객관적이어야 하며(사실을 전달), 때에 따라서는 주관적이어야 하며(예술적인 해석), 상상력이 풍부해야 한다(주관적인 묘사). 사진가가 이것들을 그의 사진 제작상의 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다면, 그는 촬영 당시의 주제 그 자체보다도 더 함축성 있고 흥미롭고 의미심장한 사진을 만들 수 있다.

■ 제1단계 : 사진의 구상

사진 매체의 특성에 알맞은 성질이 있는가를 자세히 살피면서 각각의 대상이 내보이는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자기의 목적에 가장 부합된다고 생각되는 점들을 가려낸다.

■ 제2단계 : 사진의 대강의 열개

선택이 끝났으면 주제의 특징들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연구한다. 즉 본질적인 특성들의 효과적인 표현방법을 탐구하면서 가능한 한 방해가 되는 요소는 바라보는 각도, 조명, 구성 등을 적당히 조절함으로써 약화시키거나 배제한다.

■ 제3단계 : 사진 특유의 표현법으로 묘사하기

한 주제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의 몇가지 — 입체감, 색채, 운동감 — 은 직접 사진으로 표현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진가는 이런 특성을 상징적 서술적인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제4단계 : 기술적인 처리

구상이 결정 단계에 이르고 주제로의 접근 방식과 표현방법이 확정되면, 마지막으로 사진을 제작할 준비를 하게 된다. 테크닉을 선택하고, 촬영, 포토샵(현상 인화)의 최종 단계에서는 소설가가 이미 머리속에 확정된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정도의 주의만 기울이면 된다.

천재적 재질을 타고난 사진가(예술가)는 직관력으로 사진을 찍는다. 다시 말하면 잠재의식으로 적시에 최적의 것을 촬영한다. 그런 사람에게 이 강의가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이 강의를 한번 들으면 상당한 자극을 받을 것이며 또 유익하다는 결론에 도달할지도 모른다. 예술적인 재능이 모자라는 사진가는 직관보다는 지식과 정진(精進)에 역점을 두고, 사진에 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할 확률이 커지는 것이다.

5. 사진작품

이제까지 우리는 주로 사진의 목적과 의미에 해당하는 사진의 내용에 관하여 검토해 왔다. 그러나 내용이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눈길을 끌도록, 정신을 집중시키도록 묘사되지 않은 사진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것을 피하려면 주제가 반드시 흥미있고 효과적인 형식으로 묘사되어야만 한다.

5-1 통제(control)의 필요성

스냅 사진 찍기는 쉽다. 똑딱이 카메라의 주인은 아무라도 스냅셔트를 찍을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만들 수 있다.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때로 왜 사진에 관한 서적을 읽어야 하는가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들은 선명하고 노광이 정확한 사진은 '잘 된' 사진이라 생각하며 초점이 맞지 않았거나 노광이 적절하지 않은 사진은 '잘못 된' 사진이라 생각한다. 곧 기술의 우열이 사진의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로 삼으려 한다. 그러나 이 견해가 옳다고 한다면, 어떤 사진은 기술적으로는 완벽해도 재미가 없는 반면, 어떤 사진은 기술은 그만 못해도 흥미있고 충격적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따라서 알아볼 수 있는 사진과 효과적인 사진의 차이는 차원의 문제이다. 기술의 우월성은 항상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진은 조형적인 관점에서 볼 때 효과적이고도 충격적이어야 하며, 주제의 특징을 보여야 하고, 또 심미적(審美的)인 쾌감을 주어야 한다. 이를 성취하려면 통제법을 익혀야 한다. 다양한 표현기법 중에서 자기의 표현의도에 가장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임의로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달성되었을 때 비로소 사진은 주제를 알아볼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효과적인 사진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통제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그 단어가 실제로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다. 여러 가지 가능한 기법 중에서 자기의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량과 능력을 말한다.

5-2 사진적 통제 의 원리

우리는 심볼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매우 친숙한 것이다. 말하거나 쓰거나 읽을 때마다 우리는 무심결에 심볼을 사용한다. 말은 소리에 토대를 두고, 글은 문자에 토대를 둔다. 소리와 문자는 단어를 의미하는 심볼이다. 그리고 단어는 특정한 개념을 묘사하기 위한 심볼이다. 그러나 우리는 말하거나 읽기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쉴사이 없이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흑백사진을 볼 때도 사진을 보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전에 우선 하나의 개념으로 번역되어야 할 추상적 개념 — 심볼 — 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하나의 흑백사진을 보는 사람이 단순히 거기에 색채나 동작이 없다 하여 얼굴이나 달리는 말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법은 없다. 우리는 이런 형태의 추상적 기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색채나 동작의 결핍을 기억 — 과거의 경험 — 으로 보완한다. 그런 까닭에 일반 사진가는 다음 사항을 의식하지 못한다: 그가 이런 기호를 다루고 있다는 점, 그는 이 기호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수많은 동의어(同義語) 가운데서 가장 서술적인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문인(文人)처럼 여러 개의 심볼 중에서 특수한 효과에 가장 적합한 몇 가지를 늘 선택하고 있다는 점 등. 그런 심볼을 숙지하는 사진가라야 '사진적으로 눈을 떴다' 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진가만이 사진매체의 잠재력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게 될 것이다.

현실을 사진 형식으로 전환시키는 원리 — 사

진적 통제 의 원리 — 는 한 언어를 타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원리와 대동소이하다. 그러한 번역은 두 가지 방법으로 달성될 수 있는데, 하나는 어색하고 오도적(誤導的)인 직역이고 또 하나는 원전(原典)의 피상적인 형식보다는 그의 의미나 감정을 포착 전달하려는 의역(意譯)이다. 대체로 의역은 원전에 필적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표현의 명확성이나 아름다움이라는 점에서 원전을 능가한다.

5-3 사진의 심볼(symbol)

사진가가 다루는 심볼은 문인이 다루는 단어의 어휘만큼 광범위하지는 않다. 사진 심볼은 비교적 적지만 각 심볼의 용법은 상당히 폭이 넓다. 예를 들면 밝은 색조는 즐거움, 낙천주의, 쾌활, 또는 행복 같은 정감(情感)을 상징하고, 어두운 색조는 슬픔, 극적인 정경, 고통, 또는 죽음 등을 암시한다. 그래서 사진가는 자기 사진의 전반적인 톤을 희망에 따라 밝게도 하고 혹은 어둡게 함으로써 무한한 즐거움으로부터 애절한 슬픔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정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 광선 - 사진가에게 가장 중요한 심볼

- 밝기(조명도) → 광선의 방향 → 광선의 빛깔 → 광선의 콘트라스트
- 직사광선 → 여과된 광선 → 반사광선 → 산광(散光)
- 자연광선 → 인공광선 → 지속형 광선 → 순간형 광선
- 빛은 주제를 비춘다. → 빛은 볼륨과 깊이를 상징화한다. → 빛은 사진의 무드를 결정한다. → 빛은 명암으로 구성된 디자인을

창조한다.

■ 그림자

3차원의 심볼로서 그림자 - 어떤 면(面)에 사이드라이트팅을 하여 그 사진의 톤이 고르면 평면이고, 그림자가 생긴다면 평면이 아니고 울퉁불퉁한 면이거나 곡면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그림자는 3차원을 암시하는 조형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어둠으로서 그림자 - 그림자가 진할수록 인접한 명부(明部)는 더 밝게 보이거나 색감이 강하기 때문에 사진을 더 잘 아는 창의적인 사진가는 그림자를 사진에 시각적인 힘을 주는 귀중한 조형적 요소라고 간주한다.

독립된 형태로서 그림자 - 창의적인 사진가는 늘 그림자의 중요성에 주의를 기울이며, 풍부한 상상력으로 괴상하게 변형된 그림자는 과장 효과가 크기 때문에 주제를 강조하거나 그의 특징을 매우 표현적인 형태로 묘사한다.

■ 반영

그림자와 마찬가지로 반영도 주제나 광원의 2차적인 상(像)이며, 상상력이 풍부한 사진가는 이것을 통하여 경악이나 쇼크, 피기함, 또는 예상치 않았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반영은 작품에 시선집중력을 심어주는 귀중한 수단이 된다.

하이라이트 - 햇빛이 반짝이는 수면을 촬영할 때 각각의 하이라이트에 별모양으로 빛이 사방으로 분산되면 각 점이 살아서 발광(發光)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풍경이나 해양사진에 역광에 의한 수면의 반짝임이 없으면 수면이 초원처럼 보이거나 물이 아닌 다른 물체처럼 보일 것



이다.

정상적인 반영(평면에서) - 조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주제의 반복일 뿐 가장 재미없는 반영이지만, 인물과 그의 거울 속의 반영상(反映像)을 동시에 촬영하여 앞모습과 옆모습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면 사진의 내용이 풍부해진다.

변형된 반영(곡면에서) - 일그러진 반영상은 과장효과가 크기 때문에 스트레이트한 묘사보다 더 강렬한 인상을 주는 수가 많다. 변형된 반영상은 시선을 집중시키는 힘이 크다는 것을 알고서 무작정 추구하다 보면 '예술을 위한 예술'이 되기 십상이다.

중복된 반영(투명한 물체의 표면에서) - 쇼윈도우의 유리창에서 반영상이 어긋나면 시각을 어지럽히는 것은 사실이나, 잘 이용하면 초현실적인 효과를 낼 수 있으며, 많은 내용을 단 한 장의 사진에 묘사할 수도 있다.

■ 색채

흑백의 입장에서 본 색채 - 칼라의 주제를 흑백으로 촬영했을 때, 내용을 알아 볼 수 있는 것은 흑백사진의 콘트라스트 때문이며, 그 콘트라스트는 흑백(黑白) 및 중간 톤으로 전환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러나 이때 칼라 필터를 써서 적당하게 통제를 가해야 한다.

칼라사진의 입장에서 본 색채 - 칼라사진이

쉽게 촬영되니까 많은 사진가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들을 하지만, 눈과 필름은 색채에 대하여 각각 달리 반응하며, 칼라필름은 단 일종의 광선에만 맞게 제조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독창적인 칼라 사진가는 색채의 조화와 부조화를 가릴 줄 알고, 연관성이 있는 색채와 보색을 식별할 줄 알고, 따뜻한 색깔과 차가운 색깔을 설명할 줄 알고, 색의 심리적 효과 - 지배적인 빨강, 수동적인 파랑, 평화로운 초록- 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다.

■ 깊이와 입체감

현실의 공간은 3차원이지만, 사진은 평면이어서 깊이가 없다. 그러므로 사진에 있어서 깊이는 상징적인 형태로만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공간의 본질에 대하여 공부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과 우리가 이제껏 참되었다고 느껴온 우주의 개념은 감각의 무능으로 인하여 빚어진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 큰것과 작은 것의 대비
- 선명성과 흐림의 대비
- 명암(明暗)의 대비
- 빛과 그림자

■ 동작

사진적으로 매우 흥미있는 주제들 중에는 움직이고 있는 것이 많지만 사진은 정적(靜的)이기 때문에 동작도 깊이와 마찬가지로 상징적으로 묘사될 수밖에 없다. 시속 100km로 질주하는 자동차를 선명하게 찍은 사진은 가만히 정지해 있을 때 찍은 선명한 사진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그럴 경우에 사진가는 자동차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사진을 찍으려 하는가, 아니면 동감(動感)(관념적인 것)을 묘사하려는가? 전자의 경우는 동작이 고정되어야 하고 후자의 경우는 상징적인 형태로 표현돼야 한다. 어느 경우이든 사진가는 다양한 기법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동작을 고정시키기 - 고속셔터. 스트로보 사용. panning.

흐림을 통한 운동감의 상징화 - 운동감의 개념은 공간 및 시간의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운동감은 공간상의 변화이며 공간상의 변화는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일어난다. 흐림은 비선예성이나 몽롱함에 해당되는데, 흐림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반적인 흐림은 초점을 잘못 맞추거나 조리개를 충분히 조이지 않아 발생하고, 지향적인 흐림은 노광시에 주제나 카메라가 움직임으로써 발생한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향적 흐림이다.

Motion Graph. 장시간 노광과 플레시의 병용. 다중노광.

■ 타이밍

사진제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셔터를 누르는 순간이다. 일단 셔터를 누르면 좋은 나쁜든 모든 결정이 끝난 것이며, 나머지 작업은 누구나 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셔터를 누르기 전 이라야만 사진가는 촬영거리나 앵글, 또는 렌즈나 필터를 바꿀 수 있으며, 자기의 개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할 수도 있다.

심리적인 순간 - 모든 행위에는 클라이맥스가

있다. 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의 단면이 바로 앙리 카르티에-브레송이 매우 적절하게 지적한 '결정적인 순간'이다. 셔터를 너무 일찍 누르거나 너무 늦게 누르면 극적인 순간을 놓치게 되며, 액션사진에는 차선의 순간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구도상의 타이밍 - 크기는 작지만 시각적으로 중요한 요소 - 인물, 경주용 자동차, 동물 등 - 가 화면의 중앙부에 오느냐 또는 구석에 오느냐에 따라, 화면의 위쪽에 오느냐 아래쪽에 오느냐에 따라, 중심부를 향하느냐 모서리를 향하느냐에 따라, 화면의 효과가 사뭇 달라진다. 혹은 그것만이 독립해 있느냐 아니면 다른 형태와 중첩돼 있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것을 배경으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효과가 사뭇 달라진다. 그런 주제의 배열과 모양은 끊임없이 변하며, 또 빨리 변하는 수가 있다. 그러므로 타이밍을 제대로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좌우되는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 본 타이밍 - 대개의 사진가들은 쓸 만한 주제를 발견하면 첫눈에 비친 인상이 과연 가장 좋은지 어떤지를 따져 보지도 않고 스냅을 해버린다. 그러나 시간의 여유를 가질 수만 있다면 주제를 다른 각도로 관찰함으로써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사진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들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모든 것이 타이밍을 좌우한다.

5-4 포트폴리오(portfolio)

본래의 의미는 "관청의 서류 나르는 가방"이지만, 자기의 작품을 가방에 넣고 다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라 불리게 되었다. 포트폴리오는 자

신의 얼굴과 같다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지 못하는 사진가가 사진을 인화하거나 또는 슬라이드 필름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니며, 35mm의 경우는 슬라이드 마운트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기도 한다.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자신의 기술적 수준과 선택한 주제의 표현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상품성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한다.

이제까지의 과정을 통하여 완성된 사진작품을 8×10이나 11×14정도의 사이즈로 인화해야 하는데 작품 각각의 매트 크기나 포트폴리오 가방 크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 인화한다. 이때 촬영작업의 일정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선택된 작품의 전체적인 인화상태를 일관되게 진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인화된 작품은 반드시 매트를 장착해야 하는데 작품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매트의 색상이나 디자인을 고려해야 하며, 오랫동안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중성 처리된 매트, 테이프, 코너링을 사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테마선정 시 선택한 자신의 촬영 의도와 주제에 대한 감정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A4용지 1~2매 정도로 작성하여 같이 보관하면 포트폴리오를 감상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주관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개항과 인천의 국악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글 • 이순희 (한국국악협회 인천시지회장)



인천이라는 곳... 참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조선 말기 서양 열강의 침탈과 함께 온 사회적 혼란 속에서 인천은 참으로 많은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무엇들을 담아냈으며 감내했다고 감히 말 할 수 있겠다. 제목에서 제시한 '국악(國樂)이란 용어의 정의를 단순히 음악이란 범주로 생각하지 않고 전통문화라는 범위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 민족, 국민에게 있어서 생활에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고 생활 속에서의 접촉과 변화를 가져온 것이 바로 문화적인 측면일 것이다. 또한 타 시도에 비해 그 변화의 정도가 다양한 모습으로 보인 곳도 인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항 개항 이후 다양한 열강들의 난입과 침탈을 통해 그 어느 지역보다 가장 먼저 타 민족의 문화를 몸으로 받아낸 것이 인천이요, 그들과 동화, 혹은 반발적 움직임 가진 곳도 인천이다. 이는 특별히 증거를 대지 않더라도 지리적인 측면에서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런 결과로 우리음악은 아니지만 교회문화를 통해 발전된 합창문화가 인천에서 가장 번성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충분히 이 상황을 가늠하고도 남을 것이다.

개항이후 타민족과의 교류를 몸으로 받으며 전통 문화의 변화를 가진 것이 그 시절의 현상이라면 6·25전쟁을 겪으면서는 다른 형태의 문화적 교류를 갖게 된다. 기본적으로 한국음악에 있어서 다양한 장르가 있었지만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악들을 제외하고는 지역별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이는 마치 각 지역 별 언어에 있어서 표준은 대략적인 형태를 공유하지만 조금만 내려가면 다양한 차이를 보이면 흔히 '사투리'라는 언어로 표현되는 차별을 가지는 것과 상통한다. '민요'라는 하나의 장르만 보더라도 그렇다. 기본적으로 민요는 그 음악적 특징에 따라 경기민요권, 서도민요권, 남도민요권, 강원도민요권, 영남민요권, 충청민요권, 제주민요권으로 나뉜다. 딱 들으면 아. 이젠 어디민요. 하고 알 정도로 대별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인천은 경기민요권에 속해 있으면서 그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강화도를 비롯한 섬지역과 해안가 지역의 경우 약간의 차별성을 가지면서 인천지역의 독특한 문화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해방 이후, 잘 아시다시피 인천주민의 분포를 보면 많은 지역주민들의 유입을 확인할 수 있다. 전라도지역 출신, 충청도지역 출신, 그리고 전쟁을 피해 이주한 황해도 지역 출신들이 많은 수가 유입되었다. 특히 황해도 지역 출신들의 유입은 타지역에 비해 문화적인 유입도 활발하여, 오늘날 은율탈춤보존회가 인천에 자리잡고 있을 정도로 그 세를 확장시켜 발전시키고 있으며, 서도소리의 경우도 인천지역에서 많은 소리꾼들이 배출되었다. 또한 서해안지역의 풍어제를 이끄는 많은 만신들이 인천에 자리잡아 활동하면서 향해도 만신들의 주요활동 무대가 인천이 되었다. 이들의 활발한 활동은 풍어제가 국가 중요무형문화제로 선정된 것을 볼 때,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렇듯 인천의 전통문화는 외세의 문화회오리 속에서 다양한 변화와 접점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각 지역의 문화들의 접점을 이루어낸 하나의 큰 그림이라 할 수 있겠다.

문화는 감히 말해 보건데 특별한 범규나 사회적 합의에 의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그리고 정서 속에서 자



연스럽게 흐르는 무엇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국악은 박물관에 전시되어있는 전시물이 아니라 그 변화가 비록 눈에 띄는 큰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변하는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기에 사람이 신경을 안 쓰면 없어지고 단절된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서해안 지역의 갯가 노래나 섬지역의 독특한 문화는 타지역과 크게 대별되는 인천만의 문화라고 감히 말해보고 싶다. 이들의 더욱 변질되고 단절되기 전에 적극적인 보호 및 활성화가 시급하리라 본다.

과연 인천에 있어서 국악의 내일은 어떠한가... 크게 생각나는 것은 없지만 두가 정도 언급해 보고 싶다. 첫째, 우리가 마치 어느 정도 의무감을 가지고 역사공부를 하듯, 또한 역사공부에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듯, 국악을 그렇게 대해준다면 인천지역에 있어서 전통국악의 자리보존은 잘 유지될 것이다. 잘

안보일 수도 있으나 많은 국악인들이 인천에서 스스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 때

문이다. 둘째, 인천지역의 젊은 국악도들에게 보편적인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하겠다. 일례로 우리 국악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인천지역출신 젊은 국악강사들이 모여 국악관현악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고 있다. 인천이 우리나라 2대도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현실에서 국악관현악단 하나 없는 척박한 문화현실이 과연 보편적인 모습인가? 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도저히 떨쳐 버릴 수가 없다. 특별히 국악분야에 있어서 무엇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다. 아주 보편적인 수준에서는 가자는 것이다.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 되어진다. 더욱이 전통문화는 사람이 전부일 것이다. 스승과 제자, 동료와 친구, 마을사람들, 어머니와 자식 등 이들의 하는 행동과 말과 음악이 바로 우리의 음악이요 문화라는 생각을 할 때, 작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Today click! 탐방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 인천예술고등학교

인천의 예술은 기존 작가에서 미래를 내다본다면 아무래도 앞 날의 간성들을 길러야할 것이다.

예술대학없이 예술의 척박한 땅, 인천의 예술은 '인천예술고등학교'와 '학생교육문화회관'의 두 기관에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듯 싶다.

신년에 인천예고 그리고 학생문화회관의 책임자를 찾아 인천예술 그리고 내일의 비전을 살펴보았다.

대담에 적극협조 감사드리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술고등학교의 열악한 시설,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교과목의 증설로 기초예술을 가르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

-편집자 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김창수

창으로 내려앉던 봄별이 영하의 기온을 잊게 하던 2월의 어느 날, 중구 인현동에 위치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실 문을 두드렸다. 비뻔 일정 중에도 예의 부드럽고 편안한 미소가 인상적이었던 김창수 관장님을 마주하자, '어디서 봤더라?'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실례가 될까 싶어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만화 슬램덩크의 안선생님(?)이 오버랩 되기 시작했다. 아마도 온화한 미소 속에 깊은 심지와 남다른 리더십이 느껴져서였을까?

덕분에 '문화예술' 과 '학생교육'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마신 차 한 잔의 여운이 오래도록 가시지 않았던 그 시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한다.

글 · 이현정
대담 · 김학균



인천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거 축현초등학교가 위치했던 곳에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이 자리하며 남다른 의미를 갖긴 하지만, 신도시나 소비도시 쪽에 위치했다면 활용도가 더 높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런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행히 중·동구 지역 이외에도 남동구나 연수구 쪽에서도 찾아오는 학교와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 부평에서 방문한 학부모님께서 부평에도 이렇게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평구·계양구·서구 쪽으로도 활동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가는데 많이 노력할 생각입니다.

인천학생문화회관이 자리를 잡아가려는 시점에서 동막 쪽에 평생학습관이 생기고, 또 도서관에서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자칫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의 입지가 위축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활성화 방안이 있으신지요?

평생학습관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은 '학생'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 기능면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시실이나 공연장 같은 경우 일반시민들의 이용률도 적지 않지만 그 외 시설이나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사용신청을 모두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특히 인천지역 학교로 「찾아가는 갤러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 미추홀외고를 비롯한 15개 기관에 29회의 전시를 지원하였고, 일부 도서관으로 찾아가는 갤러리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진행 시스템은 연초 10여개의 기획전시 내용을 각 학교에 소개한 후,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 「찾아가는 갤러리」를 진행하는 방식인데,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문화예술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어 호응도가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향후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교내 갤러리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저희 학생교육문화회관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공연장이나 갤러리는 자주 보았지만 그 외 부대 시설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되어 있어 놀랐습니다. 사용신청 방법이나 자격, 절차 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설 여건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용신청이 항상 많은 편인데요, 자격은 인천시 관내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사용하시겠다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데 당일 방문 신청은 불가합니다.

또 개인들은 주로 오후시간대에 놀이시설 신청을 많이 하는 편이고, 오전시간대는 본 시설로 소풍 오는 학교들이 많아서 일일문화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학교들을 상대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거의 공일이 없을 정도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을 뿐 아니라 학생교육문화회관 자체 동아리 활동도 있어 강좌 확대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 활용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수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설 활용 방침은 따로 있으신가요?

흙을 만지고 도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발달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예치료교실’을 운영하다가 작년부터 ‘국악치료교실’을 추가로 개설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들은 주로 학부모님들이 학생 강좌에 함께 참여하여 진행되고, 강좌와 더불어 전시나 발표회 등이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특히 작년에는 한국문화회관연합회에서 ‘찾아가는 문화 나눔’이라는 사업지원을 받아 직접 특수학교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 인천예총 국악회관에서도 특수학급 청소년들을 위한 사물놀이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강사과제이나 프로그램 컨소시엄 등도 함께 고려해볼만 한 여지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웃음)

강좌 수강비나 시설 대관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전 강좌는 재료비 포함하여 무료입니다. 아마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전국에서 유일한 곳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인천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인지 수강신청 경쟁률이 매우 치열할 뿐 아니라, 수강생들의 부담이 없다는 점 때문에 강사들의 선호도 또한 매우 높은 편이지요. 물론 멀티플레이존이나 동아리실도 신청승인이 되면

무료사용입니다. 다만, 공연장, 전시실, 실내체육관은 유료대관시스템으로 상·하반기 나눠 대관신청을 받고, 정기대관 이후에 수시대관이 이루어집니다. 대관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에 부대시설 사용료 등이 추가되므로 대관 담당자에게 자세히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강사선발 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사 선발 방법이나 기준, 그리고 강사 평가 방법에 대해 말씀 해주십시오.

보다 양질의 강의를 운영하기 위해 강사는 공모 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연중 다양한 문화교실(초등문화아카데미, 특색활동교



실, 토요일문화교실, 방과후 문화교실, 방학 문화교실, 교직원문화교실 등) 운영을 위해 매년 총 94명 정도의 강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강사 활동 기간은 1년이며, 기존강사들도 매년 강사신청과 선발심의과정을 다시 거쳐야합니다. 물론 활동 기간 중에도 설문지를 통한 담임평가제와 강사평가제를 운영하여 강사 자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들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항상 자기계발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어영역에 대한 시설이나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또 향후 계획도 함께 소개해주시지요.

드림팩토리 안에 3, 40석 정도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일부 있긴 하지만 학생교육문화회관은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개관되었기 때문에 학업증진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따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영어연극 강좌를 진행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업관련 프로그램들은 사실 학원들의 반발 우려도 있을 뿐 아니라 본 회관의 기본 취지와 거리가 있고, 또 연극동아리 모집을 실시했었는데 신청자가 거의 없어 운영 조건이 되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교육과 예술이 연계되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강좌운영에 고려할 방침입니다. 여담으로 저희 학생교육문화회관이 2011년에 40명 정원의 청소년오케스트라단을 창단하면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인천시에 따로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단이 없다 보니 여타 민간청소년오케스트라단들의 견제와 주시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방향으

로 생각하면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교육청 소속의 청소년오케스트라단이라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러한 과정들이 바로 '아름다운 경쟁' 이고 바람직한 경쟁은 동반 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초·중등학생들을 위해 오후 시간대에 진행하는 정기 강좌가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학교 정규수업 시간대 이후에 학생들에게 유익한 강좌를 제공하기 위해 '방과후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은 특히 악기 구비가 잘 되어 있는 편이어서 드림교실을 비롯한 관련 강좌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고, 미술교실, 국악교실, 과학교실, 공예, 뮤지컬, 핸드페인팅 등 다양한 장르의 강좌들이 있습니다. '방과후 문화교실'은 매년 상·



하반기로 나뉘어서 실시하기 때문에 신청 당일 아침에 경쟁률이 매우 치열한 편입니다. 강좌는 한정되어 있고,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더 많은 학생들의 신청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자체 동아리는 몇 개나 되고, 동아리 활동을 위한 지원이 있습니까?

올해 리듬체조 동아리가 추가되면서 현재 15개의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지원은 많지 않지만 보통 연초에 중구청이나 청소년진흥센터 등에서 동아리 활동 지원프로그램 신청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지원 대상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면 연 2회 이상 문화존 행사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한 개 동아리가 작게는 5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는 댄스동아리, 가야금동아리, 하모니카동아리, 핸드벨동아리 등이 주로 지원을 받아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2011년에는 중구청 지원으로 저희 회관 동아리들과 인천관내 학교 동아리들을 함께 초청하는 ‘2011 싸리재 청소년 동아리 축제’를 크게 열기도 했었는데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만큼 수준도 상당한 편이고, 각 기관들로부터 종종 저희 회관 동아리 출연 요청이 있기도 합니다.

초등학교는 기획전시 등을 할 만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찾아가는 학생문화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최근 신설되고 있는 초등학교들은 갤러리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요, 대표적으로 신성초등학교나 진산초등학교의 경우는 교내에 갤러리를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작년의 경우는 신성초등학교에서 기획전시를 했고, 올해는 진산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갤러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요즘은 학교 내에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갤러리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문화 나누미’ 사업의 일환으로 도서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 강좌 프로그램을 갖고 직접 찾아가는 경우도 있었고,

혹은 직접 초청하여 문화강좌와 공연관람, 인천 투어 등을 경험 할 수 있도록 2박 3일 코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신청학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반응이 좋아서 전년에 6백 명 정도 참여했던 것을 올해는 천 명 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하였습니다.

보육원 같은 시설의 소외계층 아이들 환경이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향후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지원계획이 있으신지요?

본 학생교육문화회관이 ‘학교’ 학생들을 대

상으로 하고 있어 특수학교까지는 강좌신청을 받고 있지만, 현재 ‘시설’은 신청대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은 요즘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많은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러한 사업들이 아이들을 특정 계층으로 구분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다문화가정이 되었던 보육시설이 되었던 모두 우리의 아이들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항상 열린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보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전시와 공연, 그리고 앞으로 기대되는 전시나 공연이 있다면 간단히 소개 주십시오.

2011년 7월에 개최됐던 ‘故박희성 화백 추모 유작전’이 많은 작가들과 시민들에게 감동을 줬던 전시회로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공연 중에는 지난 9월에 음악가 금난새씨와 인천시립교향악단을 모시고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열었는데 학생들은 물론 시민들이 무료로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 호응이 매우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2012년 올해는 10월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빈 소년 합창단’ 초청공연을 비롯하여 연간 37회의 기획공연이 준비 중이고, 3월부터 ‘세계



각국의 다양한 민화 속 이야기' 기획전을 시작으로 연간 20회의 기획공연과 15개 기관에 '찾아가는 갤러리' 등도 풍성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2012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이나 활동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창의·인성 신장을 위해서는 '공연 관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연 관람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게 우리 교육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은 「중학교 2학년 공연관람 체험학습」이라는 특색사업을 올해 새롭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내 중학교 2학년생들로 하여금 3월 28일부터 7월 13일까지 의무적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와서 공연을 1편 이상 관람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물론 공연 뿐 아니라 본 회관의 문화

강좌나 시설 등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2억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였을 만큼 다소 강제성을 띠더라도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인천학생들은 적어도 한 편 이상 공연을 관람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향후 좋은 시스템으로 자리잡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꿈과 미래를 펼치는 문화 공간」을 만들겠다는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의 비전처럼 인천 청소년들이 보다 즐거운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접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며, '문화예술'과 '학생교육'의 메카로 떠오르는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김창수 관장님과 김혜선 담당자님께 귀한 시간 내주신데 대해 본 지면을 비러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인천예술고등학교

대담 · 김학균(본지주간)
글 · 이창구(예술고교 예술과장)

인천예술고등학교의 연혁을 말씀해주세요

우리 인천예고는 1997.6.18.에 음악과 2학급, 미술과 2학급, 무용과 1학급을 포함한 학교 설립 인가 되었습니다. 1998.3.2. 초대 김기환 교장선생님 취임을 시작으로 2010.3.2. 현재 제6



교장 노용래

대 노용래 교장선생님께서 나날이 성장과 발전을 거듭 하고 있는 지역의 유일한 예술고등학교로서 지금까지 졸업생 총 1926명을 배출하였습니다.

2012년 학생현황을 학년별로 말씀해주세요.

인천예술고등학교 학생 수를 살펴보면, 음악과는 1학년 70명 2학년 79명 3학년 80명이고, 미술과는 1학년 72명 2학년 80명 3학년 81명이

며, 무용과는 1학년 18명 2학년 13명 3학년 19명으로 총 512명의 학생이 정공에 맞추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전문분야의 강사님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과별 전공분야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악과는 전공 전임교사 7명과 135명의 엄선된 전문강사가 전공별 일대일 지도를 하고 있으며, 무용과 역시 3명의 전공 전임교사와 27명의 전공강사가 개인 및 단체 무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미술과는 전공 전임교사 8명과 강사 23명 그리고 수시로 보강 투입되는 방과 후 교육활동 강사를 더하여 맞춤형 소그룹지도를 통해 창의적인 미래 예술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 23명의 보통교과 교사와 1명의 보건교사 그리고 행정실 8명 등 총 52명의 교직원이 한마음으

로 학교와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음악·미술·무용의 현황을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학교의 외모는 노후 하나 전국에서 보기 드문 실기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악과는 음악실1, 합창실1, 강사휴게실1, 레슨실6, 작곡실3, 연습실77개를 확보하고 있고 미술실은 소묘실2, 전공실로 한국화3 조소3 디자인3 서양화3실과 가마실1, 준비실1실이 있으며 무용과 역시 한국무용실, 발레실, 현대무용실, 종합무용실, 소무용실A, 소무용실 B 등 6개 실 확보 외에도 강사휴게실과 크고 작은 창고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인천예고의 교육목표 및 지도목표를 말씀해 주십시오.

본교에서는 '학력·창의·인성을 갖춘 전문 예술인 육성'을 캐치프레이즈로 하여, 교육목표로는 첫째, 자기주도적으로 학업에 열중하는 자주인을 기르고, 둘째, 예술 감각과 구상 능력을 갖춘 창조인을 기르며 셋째, 기본생활습관이 바른 도덕인을 양성과, 넷째, 나눔과 배려를 실

천하는 봉사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교육과정의 수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음악과는 1주일에 7시간씩 자기 주도적인 연습 및 레슨을 받는 시간으로 운영하고 심화과정으로 앙상블 및 디션 수업으로 운영하며 시창청은 수준별로 반편성하여 운영합니다. 전공 외 수업으로 피아노 및 더블베이스 연주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미술과는 서양화, 한국화, 조소, 디자인의 전공을 두고 있으며, 1학년 기간 동안은 기초 실기과정으로 다양한 조형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창의적인 능력을 계발하고 개성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기간으로 각 전공을 탐색한 후 모색과정을 거쳐 자기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후 2학년과 3학년 기간의 전공과정은 전공실기 및 일반실기(석고소묘, 인체소묘, 정밀묘사, 크로키)와 미술이론, 미술사 등의 전문 학습으로 예술가가 되기 위한 소양을 다지고 있습니다.

무용과는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의 전공에



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주요대학의 우수한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체계적, 전문적, 특성화된 무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공 관련 과목들을 배움으로써 예술가로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실전 공연수행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공교과로는 무용이론, 무용감상과 비평, 무용음악, 무용창작, 전공실기 및 부전공실기 수업이 있습니다.

인천에는 예술대학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교장 선생님의 소견, 그리고 예고 학생들의 진학문제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음악대학, 음악과 하나가 없는 광역시인 셈이지요. 지방의 소도시에도 있는 음악관련 학과가 광역시 중에서도 그 면적이 제일 넓은 인천시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미술전공 관련 학과가 설립되어 있는 대학이 몇 있을 뿐이니 지역의 예술문화수준을 논하기에 앞서 예술고 학생들이 진학 적인 측면에서 먼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인천에서 좋은 인적자원이 타 도시로 유출되는 가장 많은 분야가 예술계통의 자원임을 상기해 보면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시에는 시설 좋은 인근의 예술고로 지원을 하고, 대학 진학 때 역시 아예 진할 할 학과가 없으니 비싼 하숙비 내면서라도 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금년 대학진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학년도 인천예술고 대학 진학은 인원 수 대비하여 다른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음악과 진학률은 70명 중 46명(62건) 합격하여 66%, 미술과 진학률은 70명 중 43명(55건) 합격하여 61%, 무용과 진학률은 19명 중 17명(21건) 합격하여 90%입니다.

주요대학 합격자는 서울대 1명을 비롯하여 한예종 1명, 홍익대 4명, 이화여대 5명, 한양대 7명, 경희대 8명 등입니다.

예고가 창립된지 14년이 넘었습니다. 한국의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분이 있다면 그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역사가 깊다면 깊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군요. 깊은 예술의 경지를 생각하면 아직 한국의 예술인으로 부르기엔 이른 나이가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12번 질문의 답변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결과적으로 자신의 위치에서 왕성한



미술부장 이창구

활동들을 하고 있으며 여러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촉망되는 청년 예술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예술과 예고와의 관계, 그리고 인천에서 실시하는 대회의 수상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흔히들 인천을 지리적인 관계에서 서울의 위성도시로 위치하여 소외되거나 제한적이란 말을 합니다. 전시공간이나 공연장 등 발표공간이 다른 도시에 비하여 그 수가 상당히 적고 서울 지향적인 의식의 편견과 정책의 부재 등 여러 난제가 공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인천의 예술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자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인천만의 개성 있는 예술세계가 만들어 지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인천예술고가 존재하고 있으며 특색 있는 지역 예술문화가 확장되고 발전 될 수 있도록 매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역의 예술가들이 한마음으로 힘껏 힘이 되어주실 것으로 기대 합니다.

아쉽지만 인천지역에서 주최하는 대회는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 흔한 대학 주최의 실기 대회 하나도 아직 없는 현실입니다. 협회가 주



최하는 실기대회를 비롯한 몇 개 안되는 대회는 최고상을 비롯한 대부분의 수상을 우리학교가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역시 전국에서 주최하는 각종의 실기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음악과의 현악, 관악 등 관현악단을 조직한 실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활동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오래전부터 결성하여 활발한 연주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수한 여러 단체와 협연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학교 자체로도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현악4중주 및 관악앙상블, 중창반등과 함께 다양한 연주와 봉사활동 및 동아리 활동까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행사는 졸업생들의 발표회입니다. 졸업생들의 발표회에 대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벌써 12회째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 입니다. 회사를 직접 경영하거나 취직하는 등 직업현장에 있는 졸업생도 있고 예술가의 길을 열심히 걷고 있는 졸업생들도 있습니다.

미술과 같은 경우에는 연1회 동문작품전을 함께 하고 있으며, 이미 여러 차례 개인전을 연 동문들도 상당합니다. 근간에도 개인전을 여는 졸업생으로부터 초대장을 받고 흐뭇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음악과는 여러 유수의 교

향악단이나 앙상블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 하고 있고 무용과 역시 여러 무용단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조각 전공이시고 미술부장 선생님은 한국화 전공이십니다. 직접 교과지도를 하시는지요.

하하하 교장도 가끔 수업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때가 그림기도 합니다만 교장의 역할은 역시 학교를 경영하는데 최우선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작품 활동은 꾸준히 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술부장은 물론 직접 수업을 진행 합니다. 강사와 함께 학생들의 한국화 전공 및 소묘 실기와 이론수업을 병행 하고 있지요. 역시 작품 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악부장이나 무용부장 그리고 다른 모든 전공 교사들도 마찬가지구요.

예술고등학교다 보니 인문학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인문학 강좌는 어떻게 교육하고 있나요?

교육과정이 보통의 인문학교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고등학교 과정에서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인문학은 부족함 없이 이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행여 부족할 수 있는 교양정서를 위하여 시낭송 대회 등 과목 특성에 걸 맞는 여러 교육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도 주 5일 수업입니다. 토요일에 수업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올 해부터 전면 실시되고 있는 주 5일제 수업에 맞추어 우리학교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망학생들에 한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음악과에선 '토요중창단' 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용과는 부족한 실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무용의 기초를 다지는 프로그램을 그리고 미술과 역시 '토요미술 방과 후 교육활동'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능기부형태의 동아리활동과 봉사활동 등 폭넓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예술인들이 많이 있고 유명한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초청강의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언제든 환영하고 또한 매년 계획을 세워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공특성에 맞는 명사들이나 인물을 초청하여 예술이나 인생에 관한 좋은 말씀으로 전인적인 교육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선생님도 오셔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해주셨으며, 윤학원 선생께서도 시립합창단을 이끌고 오셔서 연주와 함께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지역의 인하대학교 성환경 교수를 비롯하여 여러 대학교수들을 전공특성에 맞게 초청하여 예술에 대한 강의와 삶에 대한 여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전국뿐만 아니라 인천의 여러 명사들을 초청하여 인생의 지표를 삼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3개의 예술과정이 있습니다. 타 장르의 전공도 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연극 or 영화, 국악의 설립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다원화 되는 현대사회의 요구가 예술문화의 영역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대학에서도 이미 실용음악과라든지 여러 생활에 관련된 새로운 학과들이 신설되고 보편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국의 예술고 중에서도 나름으로 특색 있는 장르와 모집 방법으로 시대의 조류와

함께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인근의 예술고 역시 연극영화과가 신설되어 활발히 교육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다만 국악에 관련한 학과는 전공자 수요와 공급의 여러 문제 등이 겹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듯합니다. 특히 우리 인천예고는 아직 학교 이전문제라든지 부족한 교실 등 열악한 환경 시설 문제로 새로운 학과의 신설은 좀 어려운 처지에 있어 안타깝습니다.

끝으로 예술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인천 예술계에 바라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굳이 새삼 예술에 대한 정의를 논한다는 것 보다는 지역예술의 주춧돌이라 할 수 있는 인천예술고등학교의 위치에서 바라 볼 때, 우리의 문화를 향유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갖추도록 더욱 견고한 내실을 다져나가야겠다는 다짐이 앞섭니다. 또한 인천예술고 졸업생들이 우리 지역에 다시 돌아와 배우고 다진 예술이란 큰 보따리를 풀어 헤칠 때 그들이 편히 발붙이고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소리 지를 수 있도록 지역예술 터전이 포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따뜻한 관심과 시선으로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나날이 거듭나는 인천예술고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아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ssue & Issue

- 기획전모전 자연과의 교감
- 인천-터키 현대미술 국제교류전 단상

‘자연과의 교감’ 예술의 최고 지향과제이다.

사)인천예총은 기존의 평면작업에서 벗어나 도예 설치작업 그리고 아트퍼니처의 새로운 시도로 오늘날 조형미술이 추구하여 할 과제의 명실한 답을 제시 하였다.

도자의 표면에 흐르는 ‘마띠에르’ 그리고 나무가 가진 질감의 고유한 실재는 우리의 정신영역까지를 순화시키고 있다.

성황을 이룬 본 전시 독자들의 뒷 이야기를 권하고 싶다.

-편집자 주-

실재와 순수의 경계에 선 예술

자연과의 교감

일시 : 12월 29일-1월20일

장소 : 인천예총회관

글 • 이경모 미술평론가(예술학박사)



사단법인 인천예총(회장 김재열)의 기획공모전 형식으로 치러진 이사설, 김경래, 황선아전은 '자연과의 교감'이라는 테마로 공예영역을 입체와 설치 형식으로 전환하면서 작업 과정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공예가로서의 장인정신과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마다하지 않는 작가로서의 실험정신을 두루 보여준 전시였다. 이 전시는 사단법인 인천예총에서 주관하는 '이야기가 있는 기획공모전'의 그 첫 번째 무대로서 도자와 아트피니처의 교감을 통해 순수예술과 실용예술이라는 편협한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아울러 이는 하나의 제도적 틀 혹은 특정한 양식적 범주에 자신의 작업을 한정시키지 않고 대상을 물질의 근원까지 탐구하는 과학정신과 자신의 존재적 근원을 물질의 심연으로부터 역추적하여 이를 정신영역으로 이끌어내는 인문정신이 결합된 결과물이기도 하다.



도예와 설치의 진화도식

- 이사설

한국의 도자는 '자연의 재현'이라는 전통미학의 카논에서 자유로운 입장을 취하면서 수요자의 취미와 부합해야 하는 장인적 고충과 조형적 가능성의 탐색이라는 작가적 집념이 상호 충돌하거나 조화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실용성과 예술성을 접목시키는 가운데 한국의 도자문화는 주변국과는 다른 개성적 양상을 보이게 되었고, 이는 한국 현대 도자의 전개에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던 것이다.

이사설의 작업과정은 이 지점에 부합한다. 작가는 '비움'이라는 전제를 기저에 깔고 형태를 만들어가면서 늘 형(型)에 자유로운 입장을 취하면서 형(形)이 자연과 조우하면서 생성되는 예기치 않은 결과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작가는 도예가로서의 조형적 숙련도는 물론 현대미술가로서의 창의성을 두루 보여 왔다는 이야기다. 이사설의 작업에서 전체적인 기형(器形)은 생활용구로서 우리에게 익숙한 듯 보이나 오히려 하나의 조각 작품처럼 강한 미적 아우라를 풍기면서 우리의 시선을 자극한다. 그러면서도 그의 작품은 여전히 우리가 도예라고 칭하는 전통적 장르개념의 범주 내에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작가는 흙을 선택하여 수비과정을 거쳐 기형을 만들거나 유약을 바르는 등 기법적 측면은 물론 태토나 나무를 사용하는 재료적 측면에 이르기 까지 종래 도예가 이루어온 형식적 성과들을 주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그가 장인으로서의 도예가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숙련된 기술과 노고로 재료 속에 갇혀있는 형태를 해방시켜 유용한 도구를 만든다는 것은 도예가의 존립근거이자 오랜 소명일 것이다.

이사설은 자연의 외피보다는 그 본질의 탐

무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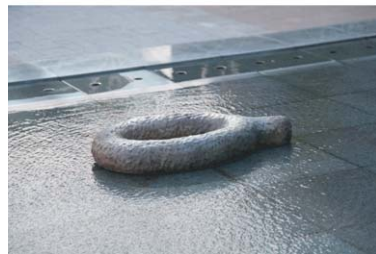


색을 통하여 사물의 정수를 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을 재현의 형식으로 드러내지 않고 물자체를 제시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그러면 조형작가로서 '만들기'를 포기한 작가적 정체성은 무엇이란 말인가. 작가는 완결된 작품 보다는 행위의 흔적을 드러냄으로서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고 흠의 속살을 날것 그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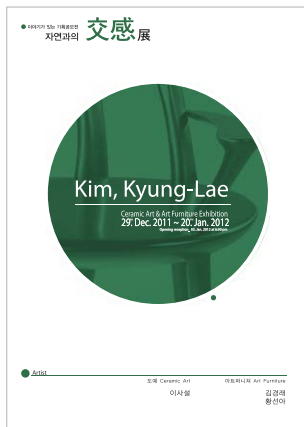
노출시킴으로써 재료에 순응하고자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결과에 대한 강박성에 구속됨이 없이 모든 개체의 물성을 초월하여 그 본질에 대하여 되물음하는 것으로 작가의 미적욕망은 지적 욕망으로 대체되고, 여전히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과편화된 작품들은 빛과 대기를 머금으며 스스로 추동하면서 어떤 가치를 위해 쏟은 장인적 노고를 부각시킨다.

이 지점에서 작가로서의 진정성, 혹은 순수성의 측면이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작가는 어떤 기능적 목적을 위해 사물을 대상화하기보다는 이를 생의 요소로 간주하여 육화시킴으로써 사물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것은 인식주관(認識主觀)에 대립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서의 사물이 아니라, 인식주관과는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존재하며 현상의 궁극적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물(物) 자체(自體)를 말하는 것으로 칸트의 말을 빌자면 사유의 영역이기는 하나 인식 범주인 완결된 실체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사철의 작품은 완성태로서의 작품이라기보다는 가능태로서의 설치의 형식을 띠고 있다.

소성과정에서 각각의 작품들은 영겨 붙거나 균열이 지고 어떤 것은 가마의 온도를 이기지 못하고 깨져 속살을 훤히 드러내놓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이사철은 돌의 조형적 가치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표현적 변주를 시도할 뿐 아니라 이를 자신의 모습에 육화시켜 세계와의 소통을 지향



하고 있다. 기교를 배제한 채 흙과 불을 이용하여 손가는 대로 만든 그의 돌은 하나하나가 개성적 모습을 뽐내는가하면 스스로 눈을 띄우면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과시한다. 이러한 돌들은 서로 어울려 군집을 이루다가도 형태나 색채, 빛과 어두움을 달리하며 어울림과 변별을 조장하기도 한다. 작가는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돌이라는 외형을 구분하러기보다는 형태의 변주와 색채의 실험, 그리고 도조와 설치의 진화도식을 통하여 새로운 조형성을 발견하고자하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아트퍼니처의 새로운 세계 - 김경래, 황선아

김경래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목조형가구를 전공하고 다수의 기획전과 공모전에서 두각을 나타낸 바 있는 신진이다. 이번에 작가는 의자(Rocking Chair)나 벤치, 소파테이블 등 매우 실용적이면서도 예술성이 가미된 작품을 대거 선보임으로써 순수미술과 공예미술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교하면서도 자연과 상충되지 않는 형태미를 보

여주는 그의 작품은 자연친화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주어 관객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아울러 형태 자체가 실용적 가치를 보여주면서도 공간과의 조화와 형식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추상미술의 영역에 근접한 그의 예술은 오늘날 조형미술이 추구해야 할 바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에 적절한 해답을 제기하고 있다.

목공작업에서 얻은 내공(장인정신)을 열려진 세상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생명성이 살아 움직이는 철학적 내공으로 세상 사람들과 호흡할 수 있는 작품을 전개해 나가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보이는 그의 작업은 그래서 예술이자 기술이고 문명이기도 하다. 이는 최근에 발표된 김경래의 의자 연작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의 작품 〈Fused-Together Chair〉는 실용성을 기반에 두고 작업해온 가운데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목공예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정에 있는 것으로 실용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추상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언뜻 추상 조각의 분방함이 화면의 기조를 이루는가하면, 대상자체가 공간과 교감하며 입체작품으로서의 존재론적 타당성을 확보한다.

그러나 그의 작품에서 여전히 공간과 상호 연계성을 이루면서 스스로 추동하는 유형·무형의 형태와 선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강조한다. 그 후 시작과 끝이 세심하게 드러난 물결 같은 연속성을 보이면서 마침내 대상과 공간, 선과 면, 전체와 부분사이의 긴장감이 또 다른 형상을 잉태시켜 동일한 주제 앞에서 늘 새롭게 재구성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김정래의 작업은 목공예라는 출발선상에서 시작하여 현대미술의 다양한 가치들을 섭렵하고, 이를 자신의 내면세계에 육화시켜 '예술'라는 주제 앞에 입체작품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형태이자 색이고 또 공간인 그의 의자연작은 구상과 추상, 공예와 조각, 대상과 공간이라는 편협한 이분법적 개념에서 벗어나 진정한 미술적 가치에 대하여 사유케 한다.

한편 황선이는 선 굵은 원목가구를 통하여 실용성을 강조하면서도 관재의 조합이나 중첩, 나뭇결의 강조를 통하여 모더니즘 가구가 보여주지 못한 생태로의 접근과 친인간적인 형태미를 보여주고 있다. 재료가 지닌 기능과 속성을 염두에 두면서 실용성과



예술성을 접목한 그의 작업은 짜여진 규격과 동일한 형태에 만족하던 모더니즘 가구에 이의제기하면서 변화 속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도발적 양상을 보여주기까지 한다. 작가의 작품에는 그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형상화 해온 물질의 질서와 이의 존재론적 위상에 관한 작가 나름의 생각이 담겨있는 듯 하다. 아마도 그것은 먼

과거에 대한 의식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하나의 시간성(temporality)에서 상충적으로 교차하는 가운데 얻어진 의식과 무의식의 편린으로 비쳐진다. 또한 그는 늘 미술가 입장에서 예술품의 존재가치와 그의 작품이 주변에 끼치는 파장, 그리고 이의 인식론적 위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자문자답을 통하여 표현 영역을 결정한다. 그것은 작품의 기원에서부터, 물질, 공간차지, 개념, 형식과 내용, 조형요소와 작가의 기술적인 문제 등 미술과 관련된 모든 의미를 포괄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이사철, 김경래, 황선아는 작업의 영역을 편협한 장르개념이나 매체개념에 예속시키지 않고 평면과 입체, 구상과 추상, 은폐와 드러남, 공학적인 짜임새와 수공적인 조야함, 금속성의 차가움과 나무의 부드러움 등 여러 상충되는 개념들의 공존으로 마치 볼트와 너트의 조우처럼 그들의 작업에서 자연스럽게 합일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치밀하게 제조된 물질의 실재성이 불완전한 수작업을 통하여 하나의 형식미를 획득하고, 마침내 자연스럽게 모던한 가치를 지닌 예술작품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적 접근은 실재와 이미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일방적이고 타성적인 인식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작가로서 그들의 표현 영역의 확대라는 이중성을 함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사물에 대한 이해는 옳은지, 실재와 관계하는 인식의 메커니즘은 예술에 의해 포장되지 않는 것인지, 사물마다 고유한 실재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지 내밀하게 성찰해 봄으로써, 실재적 사물을 우리의 정신영역으로까지 끌어들이는 데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인천-터키

현대미술 국제교류전 단상

글 · 박인우

(서양화가, 한국미협 인천지회 부 회장)

봄은 지독히도 더디 온다는 느낌이다. 기나긴 겨울의 지루함인가. 새로움에 대한 갈망인가. 무슨 일이나 그렇듯 똑딱 쉽게 이뤄질 수 있겠는가만 벗어나고 싶다는 조급함이 슬슬 기지개를 핀다. 벌써 까마득해진 인천-터키 현대미술 국제교류전에 대한 원고청탁을 받고 조금은 난감했다. 인천미술협회는 그간 수많은 인천작가들의 전시행사를 치러 왔으며 가까운 주변국 중국이나 일본등과의 국제전을 유치 한 적은 있지만 단발성행사로 끝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10년을 지속해온 터키와의 국제 교류전에 대한 단상을 지면상 짧은 글로 피력하고자 한다.

극동의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전 세계의 이목이 한꺼번에 집중 되었던 2002년은 사상초

유의 월드컵4강이라는 기염을 토해낸 해였다.

그 해는 한국사람 누구나, 월드컵과 관계가 있고 없고 간에 모두가 들떠있던 한 해였다. 당시 필자도 괜히 들뜬 기분으로 미술협회 이사로서의 일들을 수행하며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겠다는 강박관념 비슷한 시달림이 있던 차였다. 1월초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로부터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큰일 났다는 전화였으며 자초지종은 2001년 5월인가 인천시장계서는 인천월드컵 구장에서 게임을 치르게 되어있는 터키를 방문해 여러 중요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 중에 문화 예술교류관련 사항들에 대한 협정을 맺고 왔고, 미술교류전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으며 산하단체인 예총이나 미술협회에 연결조차 없었던 거였

다. 다급해진 시청에서 좀 만났으면 하는 거였다. 우리 한국에서 예술과 문화의 위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씩씩한 기억이었다. 선거 때면 외쳐대던 문화 예술이 이러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자괴감에 도와줄 수 없다고 하고 나와 버렸다. 예산부터 그 무엇도 준비 되어있는 게 없었다. 문화권이 비슷한 주변국도 아니고 머나먼 터키에다가 언어가 무언지 터키의 누구와 추진해야하는지도 없는 적막강산이었던 것이다.



국제전은 한국 사람들끼리 하는 단체전도 아니고 엄격한 룰과 규모와 절차에 의해서 어렵게 성사시키는 것인데 6개월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추진해 달라고 매 달리는 것이었다. 국가와 한 도시의 위신이 달려있는 난감한 상황이었던 것이며 우리 미술인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일임을 직감하고 당시 김 재열 지회장과 상의 끝에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어 추진했던 일이다. 막상 추진하려니 그야말로 막막했다. 무엇보다 해야 할지? 필자는 당시 대학에서 주요보직을 맡아 몹시 바쁜 일정 속에 허덕이고 있던 때였다. 국가 간의 국제작품전시는 상호간 가능할 수 있는 협정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다. 어느 정도 급의 작품이나, 어떤 정도의 작가 군이나, 어느 정도의 전시장에서 하느냐, 몇 명의 작가가 참여하느냐, 현지 참여 작가는? 타국작가에 대한 예우는? 또 향후는 어떻게 하느냐, 양측의 호스트는 누구인가, 작품의 운송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통관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한데 불과 6개월 준비해서 월드컵 개막과 맞추어 전시를 해야 하는 난감한 문제에 봉착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터키가 6.25를 통한 혈맹국이라는 말만 들었지 터키와의 교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는 작가도, 터키미술에 대한 사전지식도 전무한 상태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급하면 통하게 되어있는 것. 급기야 터키 앙카라에 있는 하제테페대학교에 유학중인 안 선에 씨를 찾아냈으며 그녀를 통해서 하나씩 급박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다. 지금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급기야 인천 측 필자와 터키 측 무스타파 교수를 호스트로 해서 모든 일들이 협의되었고 무수히 많은 메일이 오간 끝에 국제교류전에 필요한 여러 세부 절차가 마무리되어 인천 미술계 역사상 멀고도 생소한 터키와의 교류전이 성사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2002년 FIFA WORLD CUP기념 터키-인천 현대미술 국제교류전이 6월 5일-11일까지 터키 국가 대표 급 작가의 대형작품 30점과 인천작가 38명의 대형작품으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장에서 개최되었고 파라

다이스 호텔에서선 한국과 터키미술의 이해를 돕는 세미나도 열렸다. 인천 시장 및 터키대사가 참여했고 수많은 관계자가 참석한 오픈식 이었다. 터키는 대단한 나라였다. 그 스케일과 작품수준 그리고 작가들의 순수에 놀랐다는 표현이 가장 적확할 듯싶다. 호방한 민족성을 보여주는 시원하고 깊은 현대미술 작품들 이었다. 잔 멋과 시류의 때로 얼룩진 작품들과는

거리가 먼 그야말로 수준 높은 예술이었던 것이다. 인천에서 이러한 전시를 통해 시민과 미술인들의 안목을 더욱 높여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확신 속에 뿌듯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전시에 방문 참여한 6명의 작가 무스타파, 겐치아이든, 핫산, 후수누, 하야티와는 한국체류기간동안 항상 같이 하면서 수많은 즐거움을 서로 나누었던 그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하다. 우리는 향후 이 교류를 지속시키기로 약속하고 본격적인 차원에서 쌍방 교차 전시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합의를 이루었던 것이다. 이후 터키와의 교류전은 2003년 쌍방 간 약속대로 인천 작가 26명이 터키를 방문, 수도 앙카라 국립 현대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융숭하고 진지한 대접을 받으며 말로만 듣던 찬란한 역사의 문명들을 직접보고 돌아오는 길이 트였던 것이다.

2012년 이제 만 10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간 정 용일, 박 동진, 조 명식, 김 상호, 박 승천을 운영위원장으로 이어 오면서 전시 장소 및 형태가 다소 달라지긴 했으나 한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었으며, 양측 많은 작가들의 상호 방문이 있었다. 그동안 단발성으로 진행되었던 인천의 국제전시가 이제 많은 경험의 축적과 더욱 알찬 국제전을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출 수 있는 10년 이었다고 생각한다. 글로벌한 세상의 빠른 흐름 속에서 이제 각종 전시의 양상 또한 급변하고 있다. 이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



리 인천의 미술인들도 좀 더 진취적이고 공격적인 국제전의 성격으로 새로운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미술인으로서의 대중에 대한 기여는 그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속에서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작가만이 해 낼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국제전을 추진하는 일은 참으로 많은 생각과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어려운 일이다. 의식 있는 작가들이 소명을 가지고 해 내야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고쳐야 할 왜색(倭色), 양풍(洋風)의 땅이름

일본 왕호, 공신, 무장, 군함 이름에서부터
센트럴파크, 컨벤시아, 캠퍼스타운 등 난무
대표적 오류는 언어의 쇠말뚝 ‘송도(松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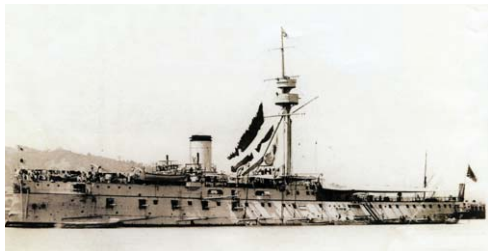
글 • 조우성 (시인 · 인천시 시사편찬위원)

정부는 종래의 지번을 도로명 주소로 개편하는 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이는 역사와 전통문화를 말살하는 행정 편의의 탁살 발상이라는 지적이 많다. ‘도로명 주소’가 한 세기만에 지번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한 ‘혁명’ 이자, 21세기를 맞는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안이라는 정부의 선전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과거 일본제국 주의자들이 우리 국토에 강제로 박아놓은 왜색적(倭色的) 언어의 쇠말뚝을 그대로 살려나가거나 용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한 술 더 떠 서양식 도로명을 마구 차용해 우리 고장 인천이 그야말로 ‘지명의 난장판’ 이 되고 말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중구의 ‘항동(港洞)’은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인천땅에 강제로 붙인 ‘정명(町名 · 일본식 동 이름)’을 그대로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이다. 개화기 전만 해도, 우리에게 ‘항구’라는 개념이 없었다. 일제가 우리에게 개항을 요구했을 때의 ‘3포(三



송도함

浦)는 ‘부산포’, ‘원산포’, ‘제물포’였다.

그러던 것을 일제가 우리 국토를 강점하면서 ‘항구’의 개념을 도입하고, 항구가 있는 동네를 ‘항정(港町·미나토 마찌)’이라 했던 것인데, 이를 아무런 자각 없이 받아들여 오늘날에도 ‘항동(港洞)’이라고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지명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일제강점기의 ‘유정(柳町·야나기 마찌)’을 ‘유동(柳洞)’이라 부르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 고유위 지명, 동명인 양 알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중구의 옛 ‘도산정(桃山町)’을 ‘도원동(桃源洞)’, 부평구의 옛 ‘삼림정(三笠町)’을 ‘삼산동(三山洞)’이라 부를 것 또한 일제의 잔재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예에 불과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천의 21세기를 좌지우지할 명운이 달렸다는 연구구의 신도시 동명인 ‘송도동(松島洞)’이다. 이는 얼토당토하지 않게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려낸 사례로써 재삼재사 개정을 주장해도 지나칠 수 없는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인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개항 직후의 지명 사정을 소개키로 한다. 1896년, 조선은 지금까지 실시해 오던 부제(府制)를 개정하여 수도인 한성부를 제외한 전국을 13도(道), 1목(牧), 9부(府), 329군(郡)으로 개정하였다. 각 부와 군은 5등급으로 나누었는데 인천은 1등급이었다. 당시 인천부의 면(面)과 동리(洞里)는 다음과 같다.



부내면(府內面)

- 내동, 외동, 평동, 금곡리, 율목동, 용동, 만석동, 답동, 우각동, 화촌동, 신창동, 화개동

다소면(多所面)

- 화도동, 수유동, 신촌리, 송림리, 송현동, 장천리, 독각리

원우이면(遠又爾面)

- 용암리, 묵암리, 동막리, 망해리, 척전리, 한진리, 함박리, 대아도리, 소아도리, 치동, 옥동

주안면(朱雁面)

- 상십정리, 하십정리, 석촌리, 간촌리, 성리, 구월리, 지상리, 전자리

남촌면(南村面)

- 염촌, 냉정리, 능동, 논현리, 도림리, 오봉산, 고잔리, 사리동, 여무실리, 제리동, 경신리

조동면(鳥洞面)

- 설래리, 곡촌리, 독곡리, 안락리, 음실리, 노상리, 수월리, 담방리, 동촌 서래리, 음상리, 하음리, 만의동

신개고면(新介古面)

- 산정리, 후음리, 시산리, 안다리, 사동, 방곡리, 검암리, 행정리, 목하동, 재동

황등천면(黃等川面)

- 곡파면, 각하리, 중림리, 두길리, 계일리, 고공리, 구음리, 내동, 풍동 풍

전반면(田反面)

- 양지리, 안혁리, 가대리, 매착리, 장락동, 도리현, 도두리, 신촌, 진촌, 강창리, 검의동, 울도리, 백전리, 육내리, 무지천리

이포면(梨浦面)

-(동명 미상)

이 가운데 ‘이포면’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인천도호부 조(條)에 남양접 자관문 남거 일백리(南陽接 自官門 南距 一百里) 즉 ‘인천도호부

청사가 있는 관교동에서 남쪽으로 1백 리가 떨어진 남양(華城郡)과 접해 있다.’고 했는데, 그 권역이 지금의 경기도에 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의 행정구역 개편

그 후 1914년 10월 조선총독부에 의해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다. 앞서 조선총독부는 1911년 전국의 지명과 지지(地誌) 사항을 조사 정리하여 ‘조선지리지자료’를 펴냈는데 이 자료에는 당시의 순우리말 지명과 한자 지명을 병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나타나 있는 순우리말 지명과 한자 지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부내면(府內面)

용동(龍洞), 외동(外洞), 내동(內洞), 평동(平洞), 화개동(花開洞), 만석동(萬石洞), 우각동(牛角洞), 금곡동(金谷洞), 울목동(栗木洞) 신창동(新昌洞), 화촌동(花村洞), 답동(畓洞)

- 다소면(多所面)

화동리(禾洞里 · 숙골), 옥정동(玉井洞 · 옥우물쭈), 비룡동(飛龍洞 · 비령이), 은행정(銀杏亭 · 은은정이), 독정리(讀亭里 · 독정이), 사미리(士美里), 성촌(城村 · 잿말), 양지동(陽地之洞 · 양지곶), 충훈리(忠勳里 · 충부), 송내촌(松內村 · 솔안말), 선양당이, 도마리(道馬里), 청대곡(靑岱谷 · 청대골), 월랑촌(月朗村 · 달랑이), 여의리(如意里 · 여의실), 장천리(長川里 ·

장사래), 신기(新基·새터), 독각리(獨脚里·독
 갑다리), 송림리(松林里), 매화지(梅花址), 신촌
 (新村·새말), 간촌(間村·새골), 만취당(晩翠
 堂), 송현리(松峴里), 수문통(水門桶·수문통거
 리), 화도리(花島里), 수유리(水踰里·무넘이),
 신촌리(新村里·새말), 선양당이(한자명 미상),
 약우물터(한자명 미상)

- 주안면(朱安面)

전재동(全在洞·전재울), 상십정리(上十井
 里·웃말), 석암리(石巖里·석바위), 하십정리
 (下十井里·아래말), 성리(城里·성말), 구월리
 (九月里), 석촌(石村·돌말), 간촌(間村·셋말)

- 구읍면(舊邑面)

도장리(道章里), 학산리(鶴山里), 산성리(山
 城里), 향교리(鄕校里), 관청리(官廳里), 승기리
 (承基里), 학익리(鶴翊里)

- 서면(西面)

신기(新基), 표산(瓢山), 마리(麻里), 늑현(勒
 峴), 경고지(更古之), 간촌(間村), 부수지(浮水
 之), 신촌(新村), 묵동(墨洞), 후곡(後谷), 내곡
 (內谷), 청릉(靑陵), 야곡(冶谷), 가곡(稼谷), 동
 촌(東村), 척전(尺前), 동막(東幕), 옥동(玉洞),
 웅암(翁岩), 한진(漢津), 대암(大岩)

- 남촌면(南村面)

고잔리(古棧里), 내동(內洞·안말), 갈산현
 (葛山峴·갈피), 석정(石井·돌우물), 괴화동
 (槐花洞·괴얏말), 논현리(論峴里·논고개), 운
 봉(雲峰), 산후동(山後洞·산뒤), 동촌(東村·
 동역), 신촌(新村·새말), 수곡(水谷·숙골), 이
 무실(伊茂室), 사리동(沙里洞·사리울), 도림리
 (桃林里), 능곡(陵谷·능골), 사리(四里), 일리
 (一里), 와우동(臥牛洞·원우골), 염촌(鹽村·
 번말), 경신리(慶信里), 냉정(冷井·찬우물), 관
 곡(官谷·관허골)

- 조동면(鳥洞面)

수현(水峴·무너미), 조곡(鳥谷·셋골), 담방
 리(淡方里·담방이), 장자동(壯字洞), 곡촌(谷
 村·골말), 설내(雪乃), 운곡(雲谷·음실), 연락
 동(宴樂洞·연내골), 만의동(晩宜洞·만의골)

- 신현면(新峴面·새오개면)

산정리(山井里·산우물), 고잔(高棧), 다자동
 (多子洞·다자골), 죽원(竹院·다니), 방곡(芳
 谷·방골), 사음리(舍音里·말음이), 국동(局
 洞·국시랑), 포동(浦洞·포촌), 구곡(鳩谷·구
 심이), 사곡(寺谷·절골), 임리(林里·슈풀이), 한
 기동(古基洞·여터골), 미산(米山·살미), 한
 정(寒井·찬우물), 검암(儉巖·금바위), 은행정
 (銀杏亭), 상기동(上基洞·우터골), 신촌(新
 村·새말), 사천장(蛇川場·뱀내장), 대야동(大

也洞·땃골), 재궁곡(齋宮谷·재궁골), 방아교(方牙橋·방아다리)

- 전반면(田反面·뱃뒤면)

양지동(陽支洞·양지말), 송내동(松內洞·솔안말, 일명 길마재), 가대동(家岱洞·가대말), 장락동(長樂洞·장락골), 매착리(梅着里), 신기촌(新基村·새터말), 율동(栗洞·밤배섬), 도두리(道頭里·도두머리), 강창리(江倉里), 진촌(陳村·진말), 검의리(檢義里·검월리), 도현리(桃峴里·도리재), 은행동(銀杏洞·일명 못지내), 중동(中洞), 신흥동(新興洞), 능내동(陵內洞)

- 황등천면(黃等川面·누릿내면)

두곡(杜谷·두무저리), 목과동(木果洞·모가울), 불아위(佛阿尉), 중림(重林), 탄평(炭坪·숫두루지), 식곡(食谷·식골), 두길(斗吉), 어연(魚淵), 옥련동(玉蓮洞), 함박리(咸朴里), 계일(桂日), 수로곡(壽老谷), 구미(九美), 가일(佳日), 건정리(乾井里·건जू물), 고공리(古孔里), 내곡(內谷·안골), 후곡(後谷·뒷골), 덕석곡(德石谷·덕석골)

일본식 정명(町名)의 등장

그러나 1914년 4월 행정 구역 개편에 의해 부군면이 통합되어 인천부의 관도는 종래 10개 면 가운데 부내면 전역과 다소면 일부만이 편입되고 나머지는 신설 부천군에 흡수되었다. 이 때

경기도 고시 제8호에 의해 정해진 인천부의 정·리(町里) 명칭이 대거 일본식으로 바뀌었다. 당시의 정·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동박문

금곡리(金谷里), 화평리(花平里), 내리(內里), 용리(龍里), 외리(外里), 우각리(牛角里), 부도정(敷島町), 도산정(桃山町), 송림리(松林里), 송현리(松峴里), 율목리(栗木里), 만석정(萬石町), 사정(寺町), 산근정(山根町), 용강정(龍岡町), 신정(新町), 궁정(宮町), 빈정(濱町), 화정(花町), 신화수리(新花水里), 해안정(海岸町), 본정(本町), 유정(柳町), 중정(仲町), 산수정(山手町), 향정(港町), 지나정(支那町), 화방정(花房町), 송판정(松坂町)

그 후인 1936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는 부천군 다주면과 문학면의 일부를 병합하여 부역(府域)을 확장하였다. 그 결과 인천부는 인구 10만 3백3명, 총면적은 27.123Km로 전보다 약 4배가 권역이 늘어나게 됐다.

이때의 행정 구역은 본정(本町), 중정(仲町), 궁정(宮町), 옥정(旭町), 빈정(濱町), 해안정(海岸町), 향정(港町), 산수정(山手町), 산근정(山根町), 만석정(萬石町), 화방정(花房町), 송판정

(松坂町), 용강정(龍岡町), 미생정(彌生町), 도산정(桃山町), 신정(新町), 화정(花町), 부도정(敷島町), 유정(柳町), 울목정(栗木町), 화평정(花平町), 화수정(花水町), 용운정(龍雲町), 서경정(西京町), 경정(京町), 창영정(昌榮町), 금곡정(金谷町), 송현정(松峴町), 송림정(松林町), 앵정(櫻町), 대화정(大和町), 일지출정(日之出町), 주안정(朱安町), 학익정(鶴翼町), 송도정(松島町) 등이었다.〈인천부세일반. 1936. 11. 15.〉

이로써 인천부의 지명은 예로부터 전해오던 고유의 땅이름에 일본식 행정단위 명칭인 ‘정(町)’을 붙이거나, 일본에서 흔히 사용해 오던 지명들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되었다. 일제가 ‘언어의 쇠말뚝’들을 박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인천부사(仁川府史)’에서 일본인들조차 “시가지 전부를 우리(일본)마을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중략) 우리 마을 이름을 명하는 것은 다소 온당치 못한 점이 있지만,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일반의 호칭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신들의 명명행위(命名行爲)가 부당했음을 자인하고 있었다.

일본색으로 바뀐 인천 지명

1940년 4월 1일, 인천부는 2차로 부역(府域)을 확장했다. 당시 부천군 관할이었던 서곶(西串), 문학(文鶴), 남동(南洞), 부내(富內) 등 4개

면이 편입되었는데, 새로 확장된 면적은 165.817Km, 인구는 171,000명으로 늘어났다. 이때 편입된 지역의 정명(町名)들은 일제가 얼마나 집요하게 식민지화를 획책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정명은 과거와는 달리 더욱 왜색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문학면(文鶴面)

원정(元町·관교리), 문학정(文鶴町·문학리), 무학정(舞鶴町·도장리), 청학정(靑鶴町·청학리), 연수정(延壽町·연수리), 동춘정(東春町·동춘리), 목월정(木越町·간석리), 정지정(鄭志町·구월리)

- 남동면(南洞面)

만수정(萬壽町·만수리), 장수정(長壽町·장수리), 운연정(雲宴町·운연리), 낭속정(浪速町·서창리), 수정(壽町·발산리), 신도산정(新桃山町·도산리), 오보정(五寶町·와우리), 논현정(論峴町·논현리), 일향정(日向町·고잔리)

- 부내면(富內面)

대도정(大島町·십정리), 소화정(昭和町·대정리), 백마정(白馬町·산곡리), 천상정(川上町·청천리), 서정(曙町·효성리), 대정정(大正町·부평리), 작전정(鵲田町·가현리), 동운정(東雲町·도두리), 삼립정(三笠町·후정리), 길야정(吉野町·갈월리), 명치정(明治町·마분

리), 향취정(香取町 · 향동리), 이등정(伊藤町 · 구산리)

- 서곶면(西串面)

천간정(淺間町 · 가좌리), 촌산정(村上町 · 대정리), 구수정(久水町 · 포리), 현무정(玄武町 · 신현리), 천대전정(千代田町 · 가정리), 일진정(日進町 · 심곡리), 흑전정(黑田町 · 공촌리), 정상정(井上町 · 연회리), 이가정(李家町 · 고잔리), 춘일정(春日町 · 시천리), 과생정(瓜生町 · 검암리), 운양정(雲揚町 · 백양리)

이처럼 제1차, 제2차의 부역 확대에 따라 편입된 위 정명들은 1945년 일제가 패망하기까지 인천부의 지명으로서 존속하였는데, 특히 제2차 확대 때 편입된 지역의 정명(町名)들은 군국주의적 성향이 특히 짙게 나타나 주목된다. 1940년 4월 당시 사용되던 인천부의 정명 중 전통 지명을 제외한 것들을 유형별로 대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왕호(王號) 차용

명치정(明治町 · 부개동), 대정정(大正町 · 계산동), 소화정(昭和町 · 부평동)

- 공신명(功臣名) 차용

화방정(花房町 · 북성동), 이등정(伊藤町 · 구산동), 정상정(井上町 · 연회동)

- 무관명(武官名) 차용

대도정(大島町 · 십정동), 과생정(瓜生町 · 검암동), 목월정(木越町 · 간석동), 천상정(川上町 · 청천동), 촌상정(村上町 · 서곶 고잔리)

- 일정명(日町名) 차용

본정(本町 · 중앙동), 중정(仲町 · 관동), 산수정(山手町 · 송학동), 항정(港町 · 향동), 빈정(濱町 · 사동), 궁정(宮町 · 신생동), 옥정(旭町 · 답동), 유정(柳町 · 유동), 도산정(桃山町 · 도원동), 미생정(彌生町 · 선린동), 송관정(松坂町 · 송월동), 용강정(龍岡町 · 인현동), 산근정(山根町 · 전동), 경정(京町 · 경동), 서경정(西京町 · 내동), 운용정(雲龍町 · 용동), 앵정(櫻町 · 도화동), 일지출정(日之出町 · 용현동), 신도산정(新桃山町 · 도림동), 일향정(日向町 · 고잔동), 원정(元町 · 관교동), 오보정(五寶町 · 남촌동), 백마정(白馬町 · 산곡동), 향취정(香取町 · 일신동), 현무정(玄武町 · 신현동), 흑전정(黑田町 · 공촌동)

- 군함명(軍艦名) 차용

운양정(雲揚町 · 백석동), 부도정(敷島町 · 선화동), 춘일정(春日町 · 시천동), 서정(曙町 · 효성동), 길야정(吉野町 · 갈산동), 대화정(大和町 · 송의동), 삼립정(三笠町 · 삼산동), 천간정(淺間町 · 가좌동), 천대전정(千代田町 · 가정동), 일진정(日進町 · 심곡동), 동운정(東雲町 ·

서운동), 낭속정(浪速町·서창동), 송도정(松島町·옥련동)

일제 잔재 지명 말소해야

왕호나 공신의 이름을 차용해 정명으로 삼은 것은 내선일체(內鮮一體)와 같은 관념의 동일선상에서 식민화 획책 저의를 드러낸 것이며, 청일·노일전쟁에 참여한 무장(武將)이나 군함의 이름을 거침없이 정명(町名)으로 삼은 것은 군국주의 일본의 단말마를 그대로 드러낸 예로 판단된다.

특히 군함명 차용의 경우, 소위 '운요호 사건'을 일으킨 '운양호(雲揚號)'를 위시해 청일·노일전쟁에 참전해 승리한 전함, 순양함, 장갑순양함, 구축함, 수뢰정 등을 망라하고 있는데 이는 인천항을 모항처럼 드나들던 일본 제국주의 군함들의 전승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는 군국 일본이 자랑해 오던 '삼경함(三景艦)'도 포함되어 있다. '삼경(三景)'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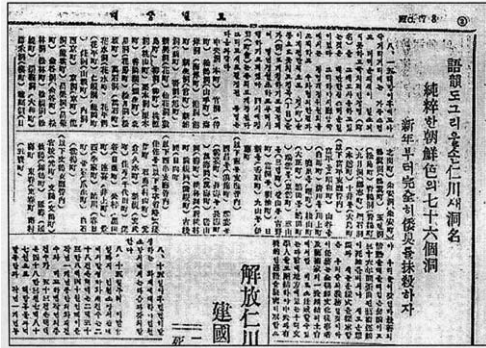
일본 군함 삼립함

란 일본의 3대 절경 즉 미야기 현의 송도(松島), 교토의 교립(橋立), 히로시마의 엄도(嚴島)를 가리키는데, 일본 해군은 그 이름을 딴 순양함 3척을 취항시켜 소위 '3경함'이라 이르며 해군의 자랑으로 삼아왔다.

3경함 가운데 한 척인 '송도함'은 동학농민운동 이후 인천항을 수시로 드나들던 4천 톤급 순양함이었다. 청일전쟁 때는 연합함대 기함으로, 노일전쟁 때는 제3함대 제5전대로 참전한 바 있다. 그러다가 1908년 4월 대만 마공(馬公) 지역에서 선내 폭약고 폭발로 침몰, 370명 중 270명이 사망했다. 일제는 그 후 나가사키 사세보 해군기지에 이들의 '순난자의 비'가 세웠다.

'송도호'는 침몰한 지 28년이 되는 1936년, 인천부 문학면 옥련리의 정명(町名)으로 부활하였다. 일찍이 인천에는 '송도(松島)'란 이름의 섬이 없었으며, 육지 한가운데의 지역을 '소나무 섬'이라 칭한 얼토당토않은 명명(命名)은 국군주의 일본이 전승을 과시하는 한편 무력의 위세를 암암리에 과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정명에 군함의 이름을 13개나 차용한 것이 바로 그러한 정황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광복 직후인 1945년 12월 23일 인천의 유일한 국문신문 '대중일보'는 "8·15해방 이후에도 아직 거리에는 가증스럽고 더러운 왜색이 일소되지 못하고 국치적인 정명(町名)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한심스러운 일이었다."며 이에 따라 시 당국은 정명개정위원



대중일보

회를 조직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정(町)’을 ‘동(洞)’으로 고치고, ‘정목(町目)’을 ‘가(街)’로 개칭하기로 하고 이를 194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비로소 우리 고유의 동명(洞名)을 찾게 됐는데, 명치정(明治町)은 부개동, 대정정(大正町)은 계산동, 소화정(昭和町)은 부평동, 이등정(伊藤町)은 구산동, 대도정(大島町)은 십정동, 목월정(木越町)은 간석동, 산수정(山手町)은 송학동, 미생정(彌生町)은 선린동, 운양정(雲揚町)은 백석동, 춘일정(春日町)은 시천동, 길야정(吉野町)은 갈산동, 삼립정(三笠町)은 삼산동, 천간정(淺間町)은 가좌동, 천대전정(千代田町)은 가정동, 낭속정(浪速町)은 서창동, 송도정(松島町)은 옥련동 등으로 환원되었다.

일제강점기 35년사는 이렇듯 땅이름의 수난 사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연전에 인천시연구구지명위원회가 이 같은 지명사(地名史)를 모

른 채 관할 신도시의 법정동 명칭을 ‘송도동(松島洞)’이라 한 것은 역사의 시계바늘을 되돌려 놓은 몽매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1) 역사상 인천광역시 관내에는 ‘송도(松島)’란 이름의 섬이 없었고, (2) 신도시 지역은 섬이 아닌 동시에 소나무와도 무관하므로 ‘송도(松島·소나무 섬)’일 수 없으며 (3) 1936년 일본이 승전을 기러 군함 명칭을 육지의 정명(町名)에 사용한 13개 정명 가운데 하나였으므로 이를 파기해야 마땅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는 군국주의 일본이 박아놓은 ‘언어의 쇠말뚝’들이 녹이 슨 채 깊숙이 박혀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그 옛날 외리(外里)라 부르던 지역을 ‘경정(京町)’에서 비롯된 ‘경동(京洞)’이라 아직 칭하고 있고, 원래의 땅 이름과는 상관없이 일본 전함 ‘미가사(三笠)’호를 기린 ‘삼립정(三笠町)’에서 유추해 고유의 마을이름인 ‘후정리(後井里)’를 버리고 ‘삼산동(三山洞)’이란 부르고 있는 것 등이 그것이다.〈끝〉



한국예총 인천광역시연합회 강화지부 탄생과 그 의미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글 · 전준희 사)인천예총 강화지부장

2011년은 강화예술역사 34년에 있어 참으로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프랑스 함대에 의해 약탈당하여 1866년 강화도를 떠났던 외규장각 의궤가 우여곡절 끝에 145년 만에 고국의 품에 안기고 고향 강화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의궤의 중요성과 내용을 알리고 또한 의궤 귀환의 기쁨을 함께 하기 위한 특별전시회가 국립중앙박물관 공동으로 강화역사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강화예총 단체가 한국예총인천광역시연합회에서 처음으로 강화지부로 인준을 받은 원년으로 더더욱 뜻 깊습니다.

강화도는 예술과 관련이 깊은 섬입니다. 종교적으로는 팔만대장경 판각 터로 전해지는 선원사가 있고, 역사적으로는 조선실록을 보존했던 정족산사고와 마니산사고가 있습니다. 팔만대장경과 조선실록은 그 스케일의 방대함이나 중요성을 보아도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대표할 만하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임이 분명합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문학사적으로 봐도 고려의 대문호 백운 이규보가 머물던 두운리가 있고, 조선 최고의 시인 석주 권필이 시회를 열던 오류대와 병자호란 당시 김만중이 태어난 염하가 있습니다. 또한 서양인들의 문화침탈 한복판에 섰던 외규장각 터가 있기도 하고, 100여년 전 강화도를 일주하며 시 256수로 강화의 자연과 역사와 강화 사람들의 생활을 노래한 화남 고재형 선생도 있습

니다. 또 '훈맹정음' 이라 불리는 한글 점자를 만든 이도 강화도 교동 태생인 송암 박두성 선생입니다.

강화는 어느 곳으로 눈길을 돌려도 작품을 그려낼 수 있는 풍광을 소유하고 있으며 전국에서도 수많은 작가들이 강화의 자연을 화폭에 담고자 방문하고 있으며 전국 어느 전시장을 가도 강화 자연 풍경을 담은 화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실로 강화는 역사문화의 고장이라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만하며 이러한 자랑스러운 역사문화의 토대 위에 우리 강화예총은 문화군민의식에 새로운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강화의 예술문화를 이끌어 오고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991년 강화예총 창립전기념 만찬 오픈 축하

1978년 강화미술교사단체가 구성되어 3회까지 전시를 이어 왔으며 무용, 국악, 음악분야까지 각자의 영역으로 활동 하다가 미술이 중심이 되어 강화예술문화협의회로 창립을 하였으며 사진분야까지 그 활동 영역을 넓게 펼치려고 하였으나 행정구역상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편입되어 미술분야에서 활동하던 교사들의 대거 전출로 미술인들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강화예술문화협의회 현판식

1990년 몇몇 작가들의 움직임으로 제4회 미술교사전을 이어 받았으며 1991년 전 설송미술학원을 미술인들의 작업공간과 예술인들의 모임 장소로 제공받아 강화예술문화협의회를 조직 창립전을 치루었으나 강화 예술인들의 숙원인 강화예총 설립이 예총설립규정에 맞지 않아 강화 자체적으로 예술인들의 모임인 예술문화단체협의회 각 분야로 또는 함께 모여 활동을 하다가 1996년 미술단체부터 미술협회 창립을 준비하여 인천지회에서 지부승인을 받아 정식으로 1997년 인천광역시미술협회강화지부 창립전을 시작으로 강화미술의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되었습니다.

1997년 한국미술협회인천광역시지회강화지부 창립전을 시작으로 강화미술인들이 김포미술협회창립전을 도움으로 김포미술협회 창립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고인돌축제, 마니산축제, 전등사축제, 해반갤러리초대전, 목동 예가죽갤러리초대전, 인천수봉공원문예회관 등 다양한 곳에서 작품전시를 함으로 강화미술의 역사를 새롭게 쓰기 시작 하였습니다.

2004년 6대 광역시에서는 처음으로 (사)한국미술협회강화지부승인을 받고 강화예술인총연합회 33회, 학생미술실기대회 17회, 전국학생미술실기대회2회, 강화미술협회전 27회 등을 치루면서 2011년 정식으로 한국예총인천광역시연합회강화지부로 승인 받게되어 한국역사의 축소판이라는 강화를 역사와 예술의 고장으로 예술인들의 힘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강화는 문화의 고장이요,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수많은 문화 유산을 소중히 여겨 이를 가꾸고 계승하여 찬란히 빛나는 향토 문화를 꽃피워 왔던 고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는 수도권 대도시에서 가까운 위치로 입지적 여건은 좋으나 활동공간 부족으로 문화 예술인들 대부분이 대도시로 진출하여 강화군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예술문화를 사



1996년 제1회 강화미술제 시상식



1996년 제7회 학생미술실기대회 시상식



2003년 강화예총 회원들에 마니산 강화사랑 자연사랑 캠페인



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모여 나름대로의 예술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찬란한 문화유산의 보고 강화를 보고 자라온 우리들이 먼저 씨를 뿌리고 소중히 가꾸어 강화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강화는 서예가의 박세림, 한국최초여성장관으로 조경희 선생님(최근 작고한 수필가), 한국예총 회장을 역임하고, 작고한 근 현대 한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작가들을 배출하였으며 현재에는 대한민국의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강화의 위상을 전국에 알린 여럿의 작가들이 존재합니다. 외롭고 험겨운 길을 가는 강화예술인들이 마니산의 정기를 받아 강화예술의 진정한 색을 만들어 낸다면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도 강화미술인들이 자랑스럽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진하고 또 무던히 노력 하고자 합니다.

한나라의 역사는 그 나라의 문화유산을 보면 안다고 하였습니다.

문화 예술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늠해 보면 진정한 국가 발전의 참모습과 국력의 부강함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찬란한 문화유산이 숨 쉬고 있는 역사의 고장 강화에서 한국예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강화라는 지역이 담고 있는 강화의 특성을 잘 살려 발전 시켜 나간다면 강화예술문화는 이 사회에서 아름답고 풍요로우므로 이루어지리라 확신 합니다.

문학

詩 받을 건다.
수필을 보다.



The Art of Incheon

- 시 _ 여자와 가방 / 이옥금
- 시 _ 봄 사냥 / 이해숙
- 시 _ 삼겹살이 먹고 싶은 날 / 전병호
- 동시 _ 진짜 밥 / 현금순
- 수필 _ 인터넷 / 류인복
- 수필 _ 깎두기 / 정영인
- 수필 _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 / 노기태

여자와 가방

이옥금

햇살 속을 주뻗주뻗 걸어가는
저 여자의 낡고 빛바랜 가방을 보아라
뺏가죽이 축 늘어지고
우툴투돌 모공이 깔려 있는 건
가방도 여자처럼 나이를 먹었다는 이야기다
답답한 속을 몇 번 뒤집어 보이고 싶었거나
헤진 속이라면 께매고 싶었을 법한 여자의 가방
한 번 째마취를 하고 개복을 했을 법한 여자
때론 빈 가방처럼 삶이 가벼워지기를 바랐을 법한 여자
가방은 여자가 되고 여자는 가방이 된 듯
입장 바꾸어 앞뒤를 흔들며 걷는다
주뻗주뻗 머뭇거리다 작아졌다 커졌다
입 꼭 다물고 햇살 속을 걸어간다
머리 위에는 마치 예비 된 방처럼
마치 가설 된 방처럼
술한 가방이 걸려있다
공중에서부터 축축 어깨가 처진 가방들
거슬러 올라간 대부분의 삶이 그렇다는 듯
한 곳에 매어 조금씩 퇴색해 가는 가방들
튼어진 실밥 사이로 희끗희끗 새치를 날린다



- 전북 김제출생
- 서울예술대 졸업
- 월간문학으로 등단
- 현 인천문협 시분과 회원

봄 사냥

이혜숙

해는 중천에서 있고
나는 무작정 문밖으로 나서고
맨얼굴을 드러낸 발뺨기는
지난겨울의 흑한으로
폭행당한 상처인 채 널브러져있다
길 위에 파란 햇살이 콩콩 뛰고
부지런하게도 뉘가 갈아 얹어놓았는지
밭에선 구수한 청국장냄새가 폴폴
솔뚜껑만큼 열린 흙 사이로
뽕족뽕족한 유리조각은
햇별을 받아 싹을 틔운다
생과 사의 경계선
바람이 트는 대로 나는 걷고



- 2000년 문학세계로 등단
- 2003년 '머루빛 눈망울' 시집
- 2009년 '추임새' 시집
- 굴포문학 회원
- 인천문협 회원
- 한국문협 회원

2011년 2월 20일

삼겹살이 먹고 싶은 날

전병호

살아갈 날들이
살아온 날들보다
가슴 아픈 날에는
삼겹살이 먹고 싶다

언젠가
불판위에서 노릇노릇
뽀글뽀글 뒤집히며
익어가던 그때 그 우리 사랑처럼

주거니 받거니
달빛아래 기운 술잔으로
우리 사랑도 취하고
이별도 취하여
너와 내가 눈물짓던 밤

만삭의 달도 내려와
석쇠위로 몸을 뉘이고
자글자글 몸을 굽히던 밤
나는 그대를 사랑했다고

그대가 보고 싶은 날에는
삼겹살이 먹고 싶다



- 1966년도 출생지 전북 장수
- 현 인천중부경찰서 근무(사고조사팀장, 상황실장)
- 제12회 공무원문예대전 동화 부문 행안부장관상 수상
- 제12회 경찰 문화대전 시 부문 경찰청장상 수상
외 입, 특선 다수

진짜 밥

현금순

밥 그릇부터 따뜻해지는 밥
두 손으로 감싸면
내 마음도 따라 따뜻해지는 밥
천천히 씹으면 단 밥
꿀떡 삼키면 키크는 밥
한 그릇 먹고 나면 힘이 솟는 밥
엄마가 해주는 밥 사랑 밥
울엄마 밥 진짜 밥.



- 눈높이 아동문학상 수상
- 청구 문화상 수상
- 동시집 『내일은 맑음이라요』, 『독도에 우체통이 생겼어요』, 『별을 굶는 아저씨』

인터넷

류인복

오전에 휴대폰 벨이 유난히 많이 울렸다. 그 중에 긴장하고 받았던 전화가 있었다.

“너, 류인복이지”

U시에 있는 학교명을 대며 그 학교 출신이지하며 내 속을 들여다보듯 반말일색이었다. 내심 건방지고 예의 없는 사람이구나 싶었다. 전파를 타고 들려오는 목소리는 나 보다 연배 인듯 했으나 분명 알 수 없는 사람이었다. 난 그저 대답만 반복했다.

“나, 강리성이야, 모르겠어?” 또 반말이다. 정말 알 수 없다.

“누구신지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나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해병대 훈련소 시절 찍은 사진 이야기를 꺼냈다. 이름은 금세 떠오르진 않았지만, 인상착의나 품성 등이 연상되었다. 포항 신병시절 목재 침상에서 함께 전우애를 나누었던 동기였다. 작은 키에 왕 눈과 두툼한 입이 인상적이었고, 전우애가 남다른 해병동기였다. 내겐 놀랄 만큼 신기한 일이었다. 인터넷의 효력을 톡톡히 본 셈이다.



- 한국방송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1994년 『인천문단』 수필 신인문학상
- 1995년 『수필문학』 수필 추천원료
- 1997년 『문학세계』 소설 신인문학상
- 한국문인협회 인천지회 회원
- (협)한국G.M자동차(주) 인천부품물류부(만석동) 근무

얼마 전, 사내 해병전우회 사무실에 들렀다가 게시판에 걸린 일간지의 기사를 본 일이 있었다. 한 해병 전우가 급한 수혈(輸血)을 필요로 한다는 기사였다. 해병사령관 이하 많은 전우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전우를 돕기 위해 헌혈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전우애를 발휘해 역시 해병이라는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는 기사였다.

기사 말미에는 해병 전우회 사이트가 공개되어 있었다. 어느 날, 메모해 두었던 사이트를 열어보니 이산가족을 찾듯 군 생활을 했던 동기들을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두 번에 걸쳐 기사를 올렸고, 그 기사를 읽어 본 동기는 내게 한 달 만에 전화를 걸었다. 반갑고 기뻐다.

수원에서 자영업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음성으로 는 알 수 없었으나 동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어느새 내 말투도 반말로 변했다. 아홉 명의 동기들끼리 어울려 대포 잔도 기울이며 추억을 반추하곤 한다. 수원에서 동지를 틀고 다들 사업을 한다는 아홉 명의 동기를 찾은 것이다. 한 동안 잊고 지냈던 동기들을 찾을 수 있었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잠시 동안의 통화로 천군 만군의 병사를 얻은 것처럼 마음 뿌듯한 오전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추억의 앨범을 뒤적이자 동기의 사진이 펼쳐졌다. 탈색이 되어 바라긴 했지만 기억 속에 모습 그대로였다. 순검¹⁾준비를 하다가 찍은 사진이었다. 긴 세월 동안 앨범 속에 갇혀 있던 사진을 인터넷 덕분에 다시 돌아볼 수 있었다. 이 계

기로 동기들을 만나고 안부도 나누며 지난 추억을 반추하곤 했다.

인터넷의 위력은 정말 대단했다. 지난 가을 포도를 판매한 적이 있었다. 큰동서가 재배한 과수 중 포도가 풍작이었다. 혈값에 넘긴다면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었다. 힘이 들더라도 직접 돌아다니면서 팔아야 수확한 보람이 있지 않겠냐며 울먹였다.

나는 방법을 모색했다. 농장에 내려가 직접 포도 맛을 보고,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같은 품종의 포도와 백화점 진열대에 있는 포도도 먹어보니 이 정도의 상품이라면 나름대로 매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재배한 포도의 크기는 작았지만 시중 가격의 반값에 당도(糖度)도 월등히 좋은 머루포도였다.

다음 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판매해 보자고 전화를 넣고 약속 날짜를 잡았다. 단지에서만 판매로는 힘들지 않을까 고심 끝에, 사내 인포맨 알림방에도 판매 안을 올렸다. 회사부도로 급여가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기에 걱정은 되었다. 큰동서에겐 접수현황을 파악한 후 말씀드리기 위해 독단으로 게시한 것이었다. 아내는 단지에서 판매망을 위한 구축활동에 들어갔고, 난 구매 홍보를 위해 뛰었다.

당일 포도차량이 단지에 도착했고, 다 팔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밝지 못한 표정으로 판매가 시작되었다. 다행히 백화점과 단지 내 거리였기에 맞

1) 육군의 '점호'로 해병대에선 '순검'이라 부른다.

을 보려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당도였다. 생활수준이 말해주듯, 소비자인 이곳 주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값이나 양보다는 질이었다. 단지 내에서 포도를 사겠다는 주민들이 소문을 듣고 밀려들었다. 상자가 팔려 나가면서 먹구름이 걷히듯 환한 얼굴로 변했다.

한나절이 되자 알림방을 통해 접수된 포도 상자를 전달하고 나니 바닥이 들어났다. 다행스런 마음으로 하루를 접었다. 값은 문제가 아니었다. 소비자에게 결정적이었던 것은 상품의 고 당도와 새벽에 수확했다는 신선도에 있었다. 포도 맛을 본 주민들이나 회사 동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더 살 수 없다는 질문이었다. 후에 한 대 분의 포도를 더 팔기도 했다.

인터넷의 판매망 덕분이었다. 어려운 시기에 아무리 좋은 상품을 홍보하기란 쉽지 않다. 소개로 상품을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젠 스스로 맛을 보고 직접 평가하고 사려는 현명한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다. 샘플을 챙겨서 맛을 보게 하고 알림방을 통해 접수를 받은 것이 주요했던 것이다. ‘두드리면 열리리라’는 말처럼, 어려운 현실이 닥쳐도 이겨내려는 의지만 있다면 해 낼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인터넷은 없어도 몰라도 안 되는 필수품이 되었다. 실효성뿐만 아니라 가치에 이르기까지, 전국은 물론 세계까지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다. 정보의 마당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문

명의 이기 물인 인터넷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컴맹에서 탈출하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한 경찰서에서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해 이산가족을 찾아주겠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실향민이나 이산가족에겐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반세기 동안 남남으로 살아야만 하는 실향민의 설움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얼마만큼 달래줄 수 있을지 기대 또한 큰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진한 기쁨을 만끽했다. 전우를 찾는 것도 큰 기쁨이었고, 농산물 판매에 일조한 것도 큰 즐거움이었다. 또한 이산가족과 실향민에 대한 아픔과 설움까지도 깔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날로 발전하는 정보통신으로 인터넷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 분명하다. 남북통일의 징검다리 역할까지도 충분히 해 내리라 의심치 않는다.

인터넷은 이제 하루 일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지만, 문학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거나 장기간 동안 기억이나 보관을 대신 해 주기로 한다. 특히 문자를 통해서 사랑을 전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과 진한 감동도 맛볼 수 있으니 금상첨화다. 메일을 통해 신속한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오늘도 인터넷 세상에서 자유로운 수영(游泳)을 위하여 빠져 본다.

깍두기

정 영 인

섞박지라는 우리 김치가 있다. 절인 무와 배추를 썬 다음, 여러 가지 고명에 젓국을 조금씩 치고 익힌 것이다. 여기에 쓰이는 무는 대개 배추김치 속 무채를 썰고서 남은 아주 못생긴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듯 자투리 무이나, 아무렇게나 생긴 무도 용도에 따라 쓸모가 있는 것이다.

이런 섞박지 김치는 깍두기처럼 설렁탕이나 곰탕을 먹을 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김치가 없는 설렁탕이나 곰탕은 그게 무슨 재 맛이겠는가?

이렇듯 인간사회에서도 깍두기 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꼭 있게 마련이다.

어렸을 적, 시골동네 아이들이 모여 편을 갈라 여러 가지 놀이를 하게 된다. 이때는 동네아이들이 전부 모이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있다. 편을 가를 때, 모인 인원수가 짝수이면 아무 무리가 없이 편을 가르게 되지만 홀수이면 으레 한 명이 남게 마련이다. 그럴 때면 대장격인 형은 그 아이를 외톨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깍두기' 라고 하여 형편에 맞게 어느



-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42년간)
- 인천문단 신인상(수필부문)
- 공문원문예대전 2회 입상(수필 부문)
- 한국문인협회 인천시지부회원(수필분과)
- 계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우리말 교육강사
- 수필집 『비움과 채움』 발간

편이나 편입 시켜주었다. 대개는 약체인 편에 각두기를 편입시켜 주었다. 하여간에 그 때 팀의 상황에 따라 각두기를 적절히 써 먹게 된다. 이즈음처럼 편가르기에 의한 왕따나 따돌림 현상이 없게 마련이다.

그러니 각두기는 약방의 감초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

또, 각두기는 존재의 가치에 따라 대단한 환영을 받기도 했다. 어느 편이나 속할 수 있는 위치와 역할이 있어서, 어떤 때는 정식 팀원보다 더 빛날 때가 있다. 이즈음으로 말하면 스페어이거나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겠다. 여자들의 고무줄놀이에도 각두기 존재가 있게 마련이다. 각두기가 그 상황에서 실력가이면 서로 자기편으로 끌어가려고 야단이었다.

따라서 각두기는 휘뚜루마뚜루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각두기는 서로 공유(共有)되는 존재이다.

지금 사회는 왕따나 따돌림 현상이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예 그 사회나 조직에서 왕따 대상을 चे켜 놓기도 한다. 여기에는 대개가 흑백논리나 이분법적 사고가 근간을 이룬다.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거나 혹은 모두가 똑같아야 하는 전제적 사고가 팽배되어 있다.

왕따는 왕따를 당하는 입장과 시키는 입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마련이다. 왕따를 당하는 당사자에게도 문제가 당연이 존재한다. 대개는 서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주저한다. 일사불란한 통일된 행동을 원하기에 맹목적으로 찬반이나

호불(好不)을 결정짓기도 한다.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일부 의원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어느 사회나 왕따현상은 없을 수 없다. 더구나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더욱 과격하기도 하다. 그런 왕따를 슬기롭게 이겨나가며 성장하는 것도 자기 인생에 부딪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각두기는 두 그룹간의 교량적 역할과 완충적 역할을 한다. 이 편과 저 편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존재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사회에는 각두기와 같은 존재의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 그들은 정식으로 어느 편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거나 버려지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고 박쥐와 같은 존재도 아니다. 혹은 어느 쪽이 이겨도 승리를 함께 기뻐하거나 어느 쪽이 져도 이쁨을 같이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쪽도 저 쪽도 될 수 있는 존재, 어떤 면으로 보면 작금의 우리 사회가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닌가 한다. 이즈음은 거의다 자기편만 쓰거나 독점 독식을 하는 것이 당연시하고 있다. 특히 인사가 그렇다. 정권이 바뀌면 꼭대기부터 말단까지 물갈이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현실은 '낙하산' 이니 '회전문' 이니 유행처럼 바람타고 내려온다. 여기에는 전문가라든지 적재적소라는 말은 아예 팽개친 지 오래다. 낙하산이나 회전문 인사는 결국 전문성과 소신성의 부족으로 이 눈치 저 눈치보다 그럭저럭 기간을 채우고 한 몫 챙기려는 부hin적(富

漢的) 자질이 다분하기 때문에 부정부패에 앞장서기 일쑤다. 또 그들의 대부분은 임면권자의 배경이 든든해서기도 하다.

미국은 대통령이 임면할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고 한다. 우리는 대개다 끼리끼리 해먹기 때문에 능력이나 자질에 상관없이 어중이떠중이 내리 꽂는다. 심지어는 수익성 좋은 대학병원 장례예식장까지 같은 뿌리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다고 한다. 어떤 신문에 보면 심지어는 장애인단체장까지 낙하산이라니 어디 권력을 제대로 내놓으려 했는가. 그러니 줄대기를, 백그라운드를 안 만들 수 있겠는가. 그래서 백박(百博)보다 일백(back)이 더 좋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니 인사제도에도 인사공정거래위원회가 꼭 필요하다. 하기가 당의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90% 이상의 소름끼치는 당선율, 군대 안 가기 위해 손가락을 자른 인사도 도지사로 당선 되는 이 땅의 정치 풍토에서 깃두기 존재는 미미하다. 쓸모 있는 깃두기 같은 존재는 여당에도 야당에도 재야에도 틀림없이 있게 마련이다.

공유(共有)되는 존재, 그계 깃두기다. 이 편도 되고 저 편도 될 수 있는 존재, 공생(共生), 상생(相生)의 한 축을 깃두기들이 담당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지조 없이 정권을 따라 유불리(有不利)에 따라 부나비처럼 옮겨 타는 그런 쓰레기 같은 존재가 아니다. 하기가 당적을 예닐곱 번이나 옮겨가며 정치한 답시고 떠드는 인사들이 아직도 득세하는 현실이

우리 정치 풍토이기도 하다.

전 정권이 하도 독식 편중이 많길래 큰 맘 먹고 다른 사람을 찍었더니 그 밥에 그 나물이라,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았다. 지금도 누가 정권을 잡아도 도토리 키재보기다.

여당과 야당이 그렇게 하나도 공유(共有)되는 것이 없는 우리의 후진적 정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다.

하나 어느 편에서도 선뜻 반가워하지 않는 깃두기 존재는 여전히 슬프다.

어렸을 적에 어리바리하여 늘 깃두기 신세인적이 많았던 나는 깃두기나 왕따의 설움을 조금이나마 알듯하다.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

노기태

단풍철이 끝나기 전까지 걱정했던 소요산행을 미룰 수 없어 씨늘한 가을 기운이 목덜미 속으로 스며드는 어느 이른 아침, 소요산행 전철에 올랐다. 소요산을 찾는 인파가 단풍철뿐만 아니라 철따라 줄을 잇는 것은 그 수려한 자연경관 못지않게 신라 불교의 대표적인 인물 원효대사와 자재암, 요석공주와 설총에 얽힌 전설 때문에서인 듯싶다.

자재암은 654(무열왕 1년)에 원효대사가 창건 했다는 유서 깊은 고찰이고 그곳에서 요석공주가 설총을 양육 시켰다는 일화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수도승이라면 꼭 한 번은 거쳐가는 필수 코스가 될 수밖에... 밤새 마음 설레던 탓이었을까, 출발역을 떠난 지 십여분도 채 안되어 깊은 수면에 빠져들었다. 좀처럼 차안에서 조는 모습을 보이려 하지 않던 내가 좌석을 정하자마자 목적의식까지 잊고 텅 비인 마음에 명상의 내적 한계인 삼매에 빠져든 것일까?



- 공주 사범 대학 졸업
- 전 인천 광역시 법무 담당관.
- 전 인천 광역시 세정 과장.
- 전 인천 광역시 의회 전문 위원.
- 전 인천 광역시 종합 문화 예술 회관장.

마음을 다 내려놓고 자유로워질 때 가장 집중이 용이해지고 외부로 향해 필요 이상으로 열려 있던 지각의 문이 닫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참된 조화를 느낀다는 순간이 바로 그때 내게 찾아왔던 것일까! 왜냐하면 원효대사와 요석공주가 꿈속에 등장했으니 말이다.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인연도 우리들의 꿈 못지않게 초현실적이다. 두 사람이 세속의 인연을 맺은 뒤 수백이 좋고 풍광이 수려한 곳을 찾던 중 소요산 자락에 등지를 틀고 요사체를 지어 산나물과 생수로 식음을 삼으며 피나는 참회와 고행, 자재무아의 수행을 쌓은 뒤 드디어 자재암을 창건하기에 이른다. 누구나 다 아는 이 사실이 한편의 동화나 뮤지컬을 보듯, 눈앞을 스쳐가더니 어느덧 종착역이라는 기내 방송에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연인 한 쌍이 부처의 뜻을 구해서 이루기까지 그리고 시발역에서 종착역에 이르기까지 한 소풍객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꿈과 합치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진다.

사람은 누구나 감각 기관으로부터 외부정보를 얻어 사물을 뇌에 전달하고 뇌로부터 나오는 정보를 통해 사물을 인식한다고 한다. 한편 감각을 통해서 뇌에 입력된 지식만으로는 현실을 정의할 수 없는 영적 인식이 기왕에 인지된 정보를 초월할 때가 있다. 꿈이나 환상 등이 그렇다.

나는 여러 번 스승과 함께 자재암 뒤편 칠성각 앞에서 명상 수련을 한적이 있는데 그때 요석공주와 설총을 자주 떠올린 적이 있었고 그 일이 잠재의식에 남아 있다가 전철에 앉아 빠져든 잠속에서 재현되었던 게 아닌가 싶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내 명상과 꿈의 대상은 원효중심 사상인 '일체유심조'에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중국으로 유학을 가던 도중에 늦은 밤에 어느 구덩이에서 머물게 되었다. 이때 원효대사가 목이 말라 바가지 같이 보이는 것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고 이 물을 마셨다.

다음날 아침에 원효대사는 간밤에 물을 떠서 마신 그 바가지가 해골임을 알고 깜짝 놀랐다. 여기서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임을 깨닫고 유학을 포기하고 되돌아 왔다는 일화가 있는데 이 일화를 통해서 일체유심조를 설명하게 되며 그때의 각성이 그의 수도행에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었다.

일반적으로 뇌에 입력된 외부 대상에 대한 정보를 상분(相分)이라 하는데 원효대사는 어두운 밤중에 본 해골바가지가 상분을 만들었고 이 상분에 따라 거리낌 없이 목이 마르다는 욕구를 충족시켰을 뿐이다. 마음이 해골을 바가지로 바꾸어 놓았으나 날이 밝자 다시 해골바가지로 밝혀진 것이다.

마음을 떠나서는 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가 겪은 스토리텔링 같은 일화를 통해 극명하게 제시된 것이다.

마음은 의식과 관련된 물질 작용일 뿐 물질과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날 내 몸동이는 그렇게 소요산행 전철 안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단풍이 사라져가는 소요산 기슭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자재암과 요석공주, 그리고 설총을 떠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소요산에 있었는지 소요산이 전철 안에 있었는지 그러나 꿈에서 깨었을 때는 분명히 그곳은 나의 종착역인 소요산이었다.

그날 하루 여행에서 일어난 일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현상에 불과하지만 원효대사의 깨달음은 영원히 나의 깨달음이 되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길에서 묻다. 흔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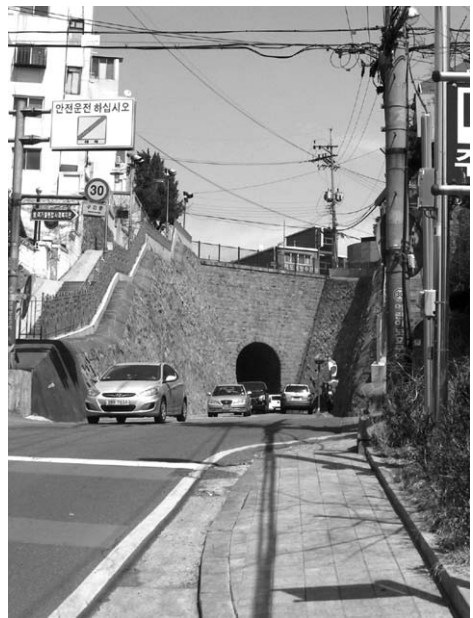
글 · 김학균

세상에는 길(道) 아닌 길이 있을까.

예언가와 다름없는 문인들은 몇 날 몇 년의 세월을 바라보는 위력이 있다. 박인환의 시(詩) 〈인천항〉을 음미해 보면 그 정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조선의 해항 인천의 부두가/ 중일전쟁때 일본이 지배했던/ 상해의 밤을 소리없이 닮아간다. 고 했던 것은 분단체제의 슬픈 불행을 예견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시로 쓴 인천 시속에 인천을 묘사한 그런 작품들 수없이 많다.

한 시대의 시대상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시를 찾아 읽어 봄은 또 다른 의미에서 역사를 접하는 희열이 있다. 소외의 무거움도 가볍게 하고 상처의 잔혹함은 경쾌하게 치유될 수 있는 살가운 시(詩)



홍예문길

맛이 있기 때문이다.

여행을 떠나거나, 등산을 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이드'나 '셀과'가 있지만 지도상에 잘 나타난 길의 안내자는 이정표이다. 허나 문명사회에서의 안내자는 지도화 된 '네비게이션'이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도로나 좀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나 지형을 송신하여 주니 어디든 못 갈 곳이 없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렇게 잘 일러줄 '네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문화를 설명해줄 그 무엇이 없고 삶의 안내자도 없다. 그러나 있다. 밀착된 삶을 살며, 눈 뜨고 새날 또 만나는 그런 분들로 나는 행복했었다. 표현이 우스운지 몰라도 신(神)같은 그 존재의 선대예술인들이 예술과 인생 어느 쪽에서든 지 나에게 '네비게이션'다운 분들 이었다.

입을 통하여 나오는 목소리의 길이 있었고 눈길, 당신네들의 그 눈길을 따라 걷는 그 길은 두 말 할 나위없이 더 좋았다. 마음과 마음은 눈으로 통한다고 했으니 말이다.

눈으로 가고 발로 보는 도시의 시가지는 세월이 가도 바뀌지 않는 속마음은 꼭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정(情) 그리고 사라져 버려도 아련한 그리움으로 짙게 남아있었다.

인천의 심장통, 미두취인소(후로 한국은행, 현 국민은행 터)와 식산은행(후로 산업은행 터, 현재 주차장)을 끼고 앉았던 '미야마찌', 6.25 전쟁과 분단 그리고

전후의 궁핍한 생활이 만든 성장 소설의 주 무대인 곳, 바람부는 쪽으로 바람과 함께 넘어지며 피흘리는 '에레나'들이 하루를 살기 위하여 없는 웃음을 만들어 몸 밖으로 표출해야만 했던 우리들의 '순이'가 있었던 영욕의 땅.

왜정시대의 아이꼬(愛子)는 해방을 맞으며 에레나로 바뀌며 불러졌던 그들은 또다른 양공주, 양딸라, 양색시, 양갈보 유엔마담 등으로 불리며 다국적 군에게 웃음을 섞어 술을 팔고 몸을 던졌었던 순이 누나들, 갈색으로 물들



미두취인소터(현 국민은행)

인 머리와 높은 구두 하이힐이 어색한 걸음걸이에 짙은 화장을 한 에레나가 되어 떨시와 천대를 받고 노부모를 공양하며 동생들을 학교에 보내 출세 할 것을 기다리며 온 몸으로 울었던 우리의 순이들이 흘린 눈물자욱이 남아있는 해안동은 흘러가는 개인의 가(街)가 아니라 집단적 기억이자 우리의 아픈 표상이다. 버려도 버려지지 않는 세계속의 지워버리고 싶은 상흔, 시간이 흘러 그 상흔은 고통으로 인정되는 것인가.



일명 : 미야마치길

‘송국문화재단’, 이승국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세운 재단의 일가를 이루었던 그 성(成)장터가 그곳으로 모래, 자갈, 양회로 부를 불렀고 한길 건너 ‘축항사무소’ 해원들의 발길을 분주하게 놓던 곳이며 한마장 건너 재벌 총수의 부를 이룬 성장터가 있고 아직도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위스키메리’의 에레나 대모(大母) 성자 아줌마는 세상에 살아 있을까 궁금하고나.

이 시대가 낳은 희생양으로 자괴감에 빠져 가족들과 유대를 영영 끊고 폐쇄적인 삶을 살며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지 않았나 싶다. 빌어도 될 일 아니겠지만 세속 인연의 끈을 놓았다면 봉분 위에 따사한 햇빛 왠 종일 내리길 바랄뿐.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리는 시간, 분주히 서두르는 행렬들 사이사이 에레나 곁에 팔짱을 낀 코쟁이들이 있다면 성공(?)한 하루이건만 쓸쓸히 길위에 족적을 놓아야하는 또 다른 순이는 응봉산을 바라보며 관동과 중앙동을 걸어 홍예문쪽으로 내일을 기약하며 걸어간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귀신을 몰아내는 듯 어둠으로...

이 시대 많은 에레나들은 일본 적산가옥의 현관쪽으로 붙은 방하나를 얻어 간단한 가재도구가 전부였으며 재산목록 1호라면 아무래도 쿠션이 좋은 침대, 그리고 화장대가 전부였다. 그리 넓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좁지도 않은 방, 전세금 낼 돈도 없었던 하루벌이(?) 신세, 다 사흘세로 살고 있었다.



중국인거리(조개지) 입구

다음 날 아침 우리의 옛 기억속에 익숙한 ‘닉스’ 비누, 그리고 ‘쫄꼬렛’ ‘츄잉 껌’ 아니면 ‘립스틱’ 등으로 댓가(?)를 받은 그들의 발길은 신포시장, 중앙시장, 양키시장으로 향하였다. 돈을 받았다면 현재 유통되는 달러가 아닌 군표를 환전하기 위한 발길, 그 시절 시냇말로는 회화별이는 그들이 했다는 말도 있었다.

치옥의 언니 매기는 흑인 병사의 아이까지 낳고 미국으로 갈 희망에 목숨을 걸고 기다렸지만 미군 지프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 누워 있었다. 술 취한 흑인 병사에 의해 죽임을 당한 매기언니의 슬픔이 녹아있는 오정희의 <중국인거리>이 소설속의 주인공은 수없이 많았다. 정말 가는 사람도 있긴 있었나보다. 중앙동 통 ‘범흥공사’ (현재도 있음)에서는 이주에 필요한 서류작성이 간간히 있었다함이 다행이었다.

선우휘 원작의 <깃발 없는 기수>속의 하룻밤 이야기는 추억의 엽서랄까. 잊을 수 없고, 이범선의 <오발탄> 오영수의 <안나의 유서> 등의 문학작품들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 가수 안다성의 노래 <에레나가 된 순이>의 모습을 잊었나고.

나의 초등학교 시절 일본인들 보다는 더 미운 그들, 나는 왜 그들에게 껌을 달라고 왜쳤을까. 얼굴을 들 수 없고나.

REVIEW

The Art of Incheon

- (사)인천예총
- (사)인천예총 미추홀문화회관
- (사)인천예총 국악문화학교
- (사)인천예총 시어터

(사)한국예총인천광역시연합회



■ (사)인천예총 제31차 정기총회 개최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광역시연합회(이하(사)인천예총)이 2012년 3월 26일 14:00 2층 회의실에서 제3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성원보고, 제30차 정기총회 회의록 낭독, 주요업무보고, 감사보고, 2011년도 사업결산승인, 그리고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조직 및 운영규정(안) 승인 등 정기총회 회순에 따라 55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마쳤다.

인천예총 2012년도 사업계획(안)

지원처	행사명	예정일시 및 장소
인천광역시 시비보조사업	제30회 제물포예술제	6월 중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2012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4월 ~ 12월 인천시내 초·중·고
	2012 인천예총 '광역시·제주도 예총 교류음악제'	4월 7일 (토) 19:30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2012 인천예총 경상운영지원	3월 ~ 12월 인천예총 사무처
인천광역시 문화학교 지원사업	계간지 '예술인천' 발간	3월 ~ 12월 인천예총 사무처
	2012 인천예총 문화학교	4월 ~ 10월 인천시 관내
인천광역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인천문화예술 활성화 정책사업 (예정)	4월 ~ 10월 인천예총사무처
인천광역시 위탁사업	2012 자유공원 토요상설공연 (예정)	6월 ~ 10월 인천자유공원
	제48회 인천시민의 날 기념 '인천도호부대제'	10월 시민의 날 인천도호부청사
인천예총 자체사업	제21회 인천예총 예술상 시상식 및 인천예총인의 밤	12월 중 인천관내 연회장

(사)인천예총은, 다음과 같은 2012년의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시민의 문화향유에 일조하며 질과 양면에서 한층 고조된 사업을 펼칠 것을 다짐하였다.

■ 2012 전국 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예총 교류음악제 “소통의 하모니”

2012 전국 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예총 교류음악제가 4월 7일 19:00 인천종합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사)한국예총 하철경 회장,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조동암 국장 그리고 (사)인천예총 김재열 회장과 각 협회 지회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역 간 예술, 문화정보공유와 조직적 연계망 구축, 예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자리로써 테너 왕원상(부산), 소프라노 김선희(광주), 트럼펫 이강일(대구), 첼로 한혜선(대전), 클라리넷 여인호(울산), 피아노 심희정(제주), 바이올린 태선이(인천) 등 7개 도시의 7명의 예술가들이 인천음악협회 오케스트라와 함께 호흡을 맞추며 음악으로 하나 되는 현장을 확인시켰다.

대전의 첼리스트 한혜선 교수의 연주를 시작으로, 울산의 클라리네스트 여인호 교수가 그 뒤를 이었으며, 3번째 무대에 오른 광주의 소프라노 김선희 교수는 인천의 작곡가 최영섭 선생의 “그리운 금강산”을 열창하며 열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본 교류음악제의 마지막을 장식한 인천 뉴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브람스 곡 형가리언 댄스 제5번을 연주하며 시종일관 관객의 함성을 자내는 무대를 펼쳤다.



■ 제43기 봄학기 프로그램 운영

- ▶ 강좌기간 : 2012년 3월 2일~5월 24일(3개월)
- ▶ 접수기간 : 2012년 1월 30일~3월 3일
- ▶ 장소 : 미추홀문화회관
- ▶ 대상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주부, 일반인, 직장인
- ▶ 문의 : 032)765-0250,0220 / www.mchart.co.kr



■ 2012 1st 하우스콘서트

- ▶ 내용 : 국악과 재즈의 만남 / 별 #
- ▶ 일시, 장소 : 2012. 2. 3(금) pm 7:00, 문학시어터
- ▶ 주최 : 인천예총
- ▶ 주관 : 미추홀문화회관
- ▶ 후원 : 인천광역시
- ▶ 입장료 : 무료
- ▶ 문의 : 032)765-0250,0220 / www.mchart.co.kr

<http://twitter.com/mchart0250>

- 현대사회는 늘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들이 존재한다.

슬프거나 외롭다. 누군가와 함께 신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하우스콘서트가 그 답이 아닐까 싶다. 멀지않아 큰맘먹고 큰 공연장을 찾을 필요도 없이 새로운 주제와 신선한 공연들이 펼쳐지는 무대는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연중 4회, 분기별로 펼쳐지는 하우스콘서트는 입장료가 무료라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고, 또 공연전에는 간단한 다과가 마련되어 있어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이 날 펼쳐진 공연은 국악과 재즈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동서양의 별이라 불리는 별 #이 나와 즐거운 공연을 보였으며, 공연 후에는 마지막 앵콜에는 '여행을 떠나요' 를 관객과 다함께 불러 그야

말로 관객과 출연진이 하나되는 알차고 뜻깊은 공연이었다.



■ 2012 2nd 하우스콘서트

- ▶ 내용 : 마림바에 매료되다 / EWUP
- ▶ 일시, 장소 : 2012. 4. 6(금) pm 7:00, 문학시어터
- ▶ 주최 : 인천예총
- ▶ 주관 : 미추홀문화회관
- ▶ 후원 : 인천광역시
- ▶ 입장료 : 무료
- ▶ 문의 : 032)765-0250,0220 / www.mchart.co.kr

<http://twitter.com/mchart0250>

- 2012라는 숫자가 낯선가 싶더니, 벌써 선선히 불어오는 봄바람과 함께 꽃들이 조금씩 눈인사를 하기 시작하는 요즘, 괜히 맘이 들떠있다. 이런 날,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줄 좋은 공연과 함께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듯하다.

미추홀 문화회관에서 주관하는 두 번째, 하우스 콘서트는 '마림바에 매료되다' 라는 주제로 약간의 생소하지만 들어보면 홀릭이 되버리는 소리를 가지고 있는 마림바와 그의 친구들인 타악기연주로 구성되어 시간의 흐름을 잊게 만들것이다. 아이들에게는 좋은 음악교육의 기회로, 성인들에게는 가족과 함께하는 감성만족 시간이 될 것이다. 이화여대 음대 전공생들의 타악프로젝트 그룹인 EWUP가 나와 다채로운 연주를 보여줄 것이며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산뜻한 공연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봄과 함께 설레이는 요즘이라면, 함께하자! 작은음악여행, 하우스콘서트와...



■ 제9회 국악사랑 내사랑

사)인천예총이 운영하는 국악회관 국악문화학교(인천국악협회 관리)의 300여 수강생들이 기량을 선보이는 제9회 ‘국악사랑 내사랑’ 발표회가 2012년 3월 31일 인천예총 수봉문화회관 소극장에서 개최되었다.

국악의 저변확대와 시민들의 국악 사랑을 표방하고 국악문화학교의 홍보를 모토로 개최된 본 발표회에는 사물놀이, 판소리등 10개 과목의 우수한 수강생과 지도 강사의 합일된 발표회로서 참관하는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얻으며 인천 유일의 국악문화학교로서의 면모를 과시하였다. 특히 판소리(민혜성 강사지도)반의 ‘강상풍월’ 공연은 수강생들의 기량이 기성 국악인 못지 않다는 찬사를 자아냈다.

축하공연의 ‘배 띄어라, 가시버시’ 공연에는 관람자들의 기립 박수로 보기 드문 광경을 연출 ‘국악인천’ 구현에 한 발 다가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미소나눔’ 봉사활동

바우처 운동의 일환으로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 이웃을 위하여 결성된 국악회관의 ‘미소나눔’ 봉사단은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8회의 봉사활동을 가졌다.

국악의 고유 특성과 미를 살리며 찾아가는 문화 선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소나눔’은 한국무용, 가야금병창, 사물놀이, 그리고 민요 공연으로 병원과 요양원을 찾아 봉사의 아름다움을 실현하고 있는 국악회관의 자랑이다. 결성된지 8년이 되어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소나눔’이다.

공연문의처 : 032-876-8364

홈페이지 : www.kukakhall.co.kr

▶활동내용

2011. 9. 9 천사의 집 요양원(한국무용, 가야금 공연)

2011. 10. 5 남구 돌봄의 집(한국무용, 가야금병창, 사물 공연)

2011. 10. 7 천사의 집 요양원(한국무용 공연)

2011. 10. 31 송의 요양원(가야금, 민요, 한국무용 공연)

2011. 12. 9 학익 돌봄의 집(한국무용, 민요 공연)

2011. 12. 14 서구 치매센터(가야금병창, 사물놀이 공연)

2011. 12. 16 동인천 길병원(민요 공연)

2012. 1. 30 송의 요양원(한국무용, 민요 공연)

■ 제37기 국악문화학교

국악문화학교는 국악교육을 통해 우리 소리의 소중함을 알고 건전한 취미생활도 함께 할 수 있는 국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통문화를 통한 자기계발과 함께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강의기간 : 2012년 4월 2일(월)~ 6월 23일(토)

▶강좌과목 : 민요/장구, 판소리, 가야금, 해금, 대금, 모듬북, 한국무용, 단소, 태평소, 피리, 선반설장고, 풍물

▶문의처 : 032-876-8364

▶홈페이지 : www.kukakhall.co.kr



■ A.O.C 소개 (Actor of can)

인천에 거주하는 청소년 어떤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극단입니다. 지금 현재 캐연기 학원 학생들은 공연을 함께 준비하면서 문화적 소양을 키워 나가며, 연극 공연을 통해 협동심과 연기력 향상은 물론 자기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연기자의 길을 가는 학생들을 위해 기획사와 연계하여 앞으로 활동을 좀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Actor of can은 노력하겠습니다.

▶ 죽은 시인의 사화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 그리고 새로 발령받은 문학 선생님 살벌한 교육제도 아래 지쳐가고 매 말라가는 아이들에게 새로 부임한 문학 선생님은 틀을 깨고 아이들에게 마음으로 보는 눈을 갖게 해주었다. 아이들은 드디어 난생 처음 자신들의 꿈을 찾으려 하는데...

▶ 2012 방황하는 별들

청소년 보호소에 잡혀온 7명의 아이들. 모두가 좋지 않은 시선으로만 보는 아이들은 각자의 방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은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며, 나누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 종이 비행기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가치와 천부적 권리, 절대적 평등성, 그리고 기회의 균등을 가지고 태어 났으며 한 인격체로 양육 받고 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른이라는 이유로 청소년들에게 망각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폭력! 어떤 폭력이든 정당화 될 수는 없다. 가정폭력, 사회폭력 요즘 이슈가 성범죄와 학교폭력이 난무한 이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 그 답을 찾아 가세요

■ 2012 House Concert

▶ 타악계의 뜨는 유망주 "EWUP"

마림바에 매료된다(2012년 4월 6일)

이화여대 타악을 전공한 "EWUP"는 이화여대 음대

전공생들의 타악프로젝트 그룹으로 마림바, 실로폰을 비롯하여 드럼 등 타악계의 뜨는 유망주입니다. 흔히 볼 수 없는 마림바 연주 및 다른 악기들과의 호흡 등 다채로운 연주를 보실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 Member

- 마림바 1 : 장나은 - 마림바 2 : 진유영
- 바이올린 : 박태연 - 비올라 : 김정원
- 첼로 : 서사론

▶ Repertory

- digga digga
- srpska igra / Der wanderer / Ein liebeslied
- 간단하게 타악기 종류별 악기소개
- 냉정과 열정사이 / piazzola Libertango(yoyoma ver.)
- 동물의 사육제(백조) / 왕벌의 비행
- Playera

■ 제 30회 인천항구 연극제

제 30회 인천항구 연극제가 2012년 3월 24일 문학시어터에서 개막식을 가지고 33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인천 연극인들이 인천시미과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본 항구연극제는 2개 극단의 초청 공연과 6개 극단의 공연경합 작품을 가지고 4월 22일까지 경연을 펼쳐지게 된다.



극단, 십년후의 <화> 극단, 무예의 <각시뿔> 극단, 피어나 <도원을 가다> 극단, 한 무대 <용서> 극단, 산만의 <나의 조국, 미운 대한민국> 그리고 극단, 놀이와 축제의 <고양이 춤> 등으로 경합을 벌인다.

올 공연 심사후 대상작품은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 연극제에 인천을 대표하여 출전하게 된다. 시상식은 4월 22일 오후8시, 시어터에서 있을 예정이다.

인천의 예술, 역사 그리고 미래

금번 호로서 “예술인천”은 6번째 펴내게 되었습니다. 원로 음악가이신 최영섭 선생님을 표지 인물로 모시며 음악과 함께한 일생을 책속에 담아 보았습니다.

국민가곡 “그리운 금강산”을 작곡하신 선생님은 강화에서 태어나 인천을 위하여 사신 인천인 이십니다. KBS 교향악단 단장시절 동향 출신 시인 한상익 선생님과 교류하시며 일군 “그리운 금강산”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렇듯 선생님의 생은 찬란하시건만 누가, 어느 단체가, 어느 지자체에서 선생님을 존경하며 모실 것인가. 바로 우리는 반성하며 다시 선생님을 모셔야겠습니다.

금번 호에서 독자여러분과 만남은 아무래도 인천 예술의 근간이 될 인천예술고등학교의 이모저모를 소개하여 궁금증을 풀어내는 것이며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속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예술고등학교의 노용래 교장님과 이창구 예술과장 그리고 교육문화회관의 관장님, 큐레이터를 겸하고 계신 김혜선님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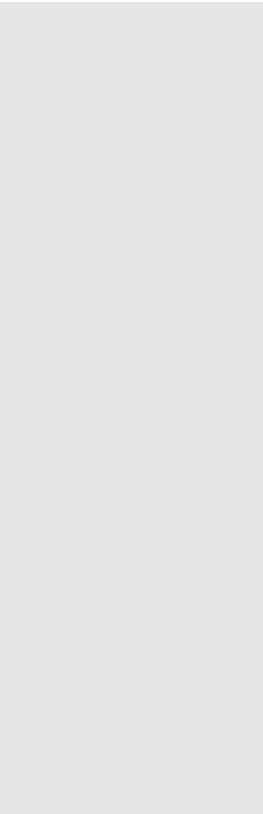
지상갤러리와 모든 문학 쪽 좋은 작품을 주신 화가, 사진작가, 시인, 수필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리며 늘 언제 집필에 고생 많으신 조우성, 이경모 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지는 앞으로 인천의 예술을 빛낸 여러 장르의 예술가를 찾아 대담으로 역사를 만들어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은 가셔도 역사는 살아 있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발간되어 질 것입니다.

년년을 거듭 회차의 깊이가 있는 9개 협회의 예술행사를 조명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말입니다.

본호의 리뷰는 각 협회의 행사관계로 쉬고, 활동이 황성한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호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할 예정입니다.

(사)한국예총 인천광역시연합회
회장 김재열



1894년 8월에 완공, 사적 제287호 답동성당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 □ □ - □ □ □



받는 사람

예술인천 편집실
402-812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안길 78
(사)한국예총인천광역시연합회

우편엽서

우표

보내는 사람

□□□-□□□

받는 사람

□□□-□□□

예술인천

『예술인천』에 바란다

『예술인천』은 인천의 예술가와 인천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지입니다.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예술인천』이 되기 위해 설문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성껏 보내 주시는 의견은 더욱 알찬 내용의 『예술인천』을 만드는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께는 소정의 선물(공연, 행사입장권 혹은 책)을 보내 드립니다.

1. 이번 『예술인천』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 / 아쉬웠던 기사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3. 인천예총과 『예술인천』에 바라는 점을 적어주세요.
4. 정기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 _____ 성별 : 남, 여 연령 : 만 세 휴대전화번호 : _____

연락처 : _____ E-mail : _____

구독 희망주소 : (-) _____